

2022 겨울

농업·농촌경제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특별주제

- 농산버섯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 국내 유기축산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 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와 농업종사자의 의사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5월), 여름(8월), 가을(11월), 겨울(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관측&동향/농경동향/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배현정 bhj923@krei.re.kr, 이형용 lhy2813@krei.re.kr

연락처 전화: 061-820-2371 팩스: 061-820-2409

목 차

I. 일반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고용	3
3. 소비	4
4. 물가	6
5. 금융·환율	12
6. 세계경제	15

II. 농촌경제 동향

1. 농림어업 경제성장	17
2. 농촌 물가	18
3. 농림어업 취업자	23
4. 농축산물 수출입	25

III.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1. 곡물	31
2. 엽근채소	35
3. 양념채소	40
4. 과일	46
5. 과채	53
6. 축산	61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

- 1. 조사 개요 69
-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실태 71

특별주제

- 농산버섯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85
- 국내 유기축산 현황과 활성화 방안 99

요 약

I. 일반경제 동향

- 2022년 4/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정부소비, 건설 및 설비투자가 늘었으나 수출, 민간소비 등이 감소함.
- 2022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2,82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150만 명으로 나타남.
- 2022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7% 증가함. 2022년 12월 소매판매는 카드 국내승인액 및 백화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2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서비스 각각 1.9%, 6.1%, 23.1%, 4.1% 상승함.
- 2022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25.4로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하였으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36.4로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함.
- 2022년 11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6.8% 감소하였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5.4%, 5.0% 증가하였음. 2022년 12월 시장금리(국고채)는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하락함.
- 2022년 4/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은 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원/100엔, 원/위안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음.
- 2022년 3/4분기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의 경우 3.2%, 중국 3.9%, 일본 -0.2%, 유로존 0.3%를 기록함.

II. 농촌경제 동향

- 2022년 4/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1.5% 증가함.
- 2022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전기 대비 6.4% 하락함.
 - 부류별로 곡물, 축산물, 특용작물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청과물, 화훼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2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7%, 전기 대비 0.3% 상승함.
 - 재료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해당 모든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 전기 대비 2.6% 상승함.
 - 노무비, 경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3%, 18.2% 상승하였지만, 자산구입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9.5% 하락함.
- 2022년 4/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3.1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악화됨.
 -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2.5%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가 12.7%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임.
- 2022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함.
- 2022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21억 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113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 순수입액은 약 92억 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함.

III. 특별주제

1. 농산버섯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 최근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버섯 생산액과 달리 수출이 부진해진 상황에서 버섯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버섯 소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소비에 영향을 크게 받는 버섯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버섯 선호도나 소비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500명)을 대상으로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팽이버섯 소비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4개 농산 버섯의 구매 행태, 소비 형태, 구매 시 고려사항 등을 조사함.
-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팽이 모두 외식소비 비중이 가정 내 소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양송이는 네 품목 가운데 가장 소비하지 않는 품목으로 조사됨(6.4%).
- 버섯 소비량 변화 질문에 전년 대비 ‘변화 없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양송이와 느타리는 ‘약간 감소’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고 새송이와 팽이는 ‘약간 증가’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 버섯 구매 횟수 및 구매 물량에 대해 1개월 기준 새송이를 2.7회로 가장 빈번하게 구입하고 있으며, 구매 물량 또한 새송이(352.3g)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버섯의 요리 및 섭취 방식은 대체로 볶음류, 찌개 및 전골류, 구이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류와 무침류는 그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버섯의 포장 방식은 대체로 소포장 형태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박스 포장 형태는 그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버섯의 주요 구매 경로는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는 동네 슈퍼마켓, 중소형 슈퍼마켓, 전통시장 순으로 높았음.
- 소비자는 버섯 구입 시 신선도, 원산지, 위생 및 안정성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으며, 요리의 편리성, 요리 종류의 다양성, 브랜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국내 유기축산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유기축산은 잔류 농약 및 항생제가 없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환경 보전, 생태계 복원, 동물복지 실현 등 다양한 환경·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2001년에 도입된 「유기축산물 인증제」는 도입 이후 20년이 지난 2021년에도 인증 농가는 133호로 저조함. 따라서 참여 농가 확대 및 유기축산물 소비 확대 등으로 유기축산 활성화가 필요함.
- 유기축산의 가치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의 유기농업 원칙에 기반해 분류함. 유기축산의 가치목록별 기능으로 ‘생태(Ecology)’는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기여와 생태계 보전(자연·농업), ‘건강(Health)’은 식품 안전성 제고(인간 건강)와 동물복지 증진(동물 건강)으로 정의함. ‘공정(Fairness)’은 지역사회 유지와 공정한 소득 분배, ‘배려(Care)’는 미래 세대 배려로 정의함.
- 소비자조사 결과 유기축산물 인증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은 낮았음. 유기축산물과 일반축산물의 차이를 인지하는 소비자는 15.6%에 불과하며, 유기축산물과 동물복지축산물 인증의 차이를 인지하는 소비자는 15.3%로 낮아 유기축산물 인증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1.8%이며, 구매한 유기축산물 종류는 ‘유기 계란’, ‘유기 우유’가 많았음. 응답자 특성별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구매 경험이 높았으며, 여성 소비자, 서울지역 거주자, 가족 구성원 수가 4명이거나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 임신 계획이 있거나 기혼(주말부부)의 구매 경험 비율이 높았음.
-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은 비교적 높았으며, 구매 의향은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더 높게 나타남. 유기축산물 구매 이유로는 ‘식품 안전성’, ‘위생 상태·신선도’, ‘자연 친화적 사육’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으나, 유기축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반축산물에 비해 비싸서’, ‘축산물 구매처에 유기축산 인증제품 없음’에 대한 응답 비중이 높았음.
- 유기축산이 지니는 가치·기능 정립 및 소비자조사 결과로부터 유기축산물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유기축산물을 구매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높은 가격수준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함. 이와 더불어 유기축산물 소비 확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유기축산물 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 확보 노력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가 인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기축산에 대해서도 유기지속직불금 도입이 필요함.

I. 일반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경제성장²⁾

- 2022년 4/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감소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함.
 - 2022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전기 대비 0.1% 증가함.

부문별 경제성장률 추이

구분	2021 ^p					2022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G D P 성장률	4.1	1.7	0.8	0.2	1.3	2.6	0.6	0.7	0.3	-0.4
민간소비	3.7	1.2	3.3	0.0	1.5	4.4	-0.5	2.9	1.7	-0.4
정부소비	5.6	1.6	3.5	1.4	1.5	4.2	0.0	0.7	0.1	3.2
건설투자	-1.6	0.1	-1.5	-2.0	2.0	-3.5	-3.9	0.2	-0.2	0.7
설비투자	9.0	6.8	0.9	-3.0	-0.2	-0.7	-3.9	0.5	7.9	2.3
총 수 출	10.8	4.1	-0.7	1.1	3.2	2.9	3.6	-3.1	1.1	-5.8
총 수 입	10.1	5.6	2.7	-0.3	3.5	3.5	-0.6	-1.0	6.0	-4.6

주 1. 2021^p, 2022^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준호 연구원(kjh92@krei.re.kr), 이형용 전문위원(lhy2813@krei.re.kr)이 작성함.

2) 경제성장 부문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2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2023.01.26.)」,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 「최근경제동향(2023.01.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부문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정부소비, 건설 및 설비투자 등이 늘었으나 수출, 민간소비 등이 감소함.
 - 2022년 4/4분기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의류 및 신발 등의 재화와 숙박음식, 오락문화 등의 서비스 소비가 줄어 0.4% 감소함.
 -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3.2% 증가함.
 - 2022년 4/4분기 건설투자는 비주거용 건물건설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하였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2.3% 증가함.
 - 2022년 4/4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5.8%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원유, 1차 금속제품 등이 줄어 4.6% 감소함.
- 경제활동별로는 서비스업이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의 감소폭이 확대됨.
 - 농림어업은 재배업을 중심으로 1.5% 증가함.
 - 제조업은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1% 감소함.
 - 서비스업은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8% 증가함.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21 ^p					2022 ^p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농림어업	3.8	6.9	-9.8	8.2	0.7	-1.2	1.6	-8.7	3.9	1.5
제조업	6.9	3.9	-0.4	-0.3	0.7	1.4	3.3	-0.7	-0.8	-4.1
서비스업	3.8	0.9	1.7	0.6	1.9	4.1	0.0	1.8	0.8	0.8
(도소매및음식숙박)	3.4	1.0	2.1	-0.7	4.5	6.5	0.1	2.3	2.3	0.1
(운수업)	5.3	3.8	4.2	-1.7	4.4	9.2	-1.1	8.1	-1.5	5.4
(금융 및 보험업)	6.7	1.7	-1.3	3.5	1.9	2.4	0.3	-2.3	0.7	2.7
(정보통신업)	5.5	0.8	2.3	2.8	2.4	4.5	-2.9	4.0	2.4	-1.5
(문화 및 기타)	2.9	1.4	2.9	0.2	3.2	11.7	-0.1	7.2	5.9	-1.5

주 1. 2021^p, 2022^p 자료는 잠정치임.

2. 표 안의 숫자는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는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3. 2015년 기준 연쇄가중법에 의해 추계된 실질 GDP

자료: 한국은행

2. 고용³⁾

- 2022년 4/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9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
- 2022년 4/4분기 취업자 수는 2,822만 명으로 전기 대비 0.7%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함.
 - 산업별로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모두에서 취업자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0%, 2.8%, 2.9%, 0.2%, 2.4% 증가하였음.
- 2021년 4/4분기 실업자 수는 74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함.

고용동향

단위: 천 명, %

구분	2021					2022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경제활동인구	28,310	27,748	28,596	28,451	28,445	28,922	28,360	29,227	29,143	28,957	1.8
(경제활동참가율)	62.8	61.7	63.5	63.1	63.0	63.9	62.7	64.6	64.4	63.9	1.4
취업자	27,273	26,369	27,467	27,645	27,611	28,089	27,369	28,347	28,425	28,216	2.2
• 농림어업	1,458	1,253	1,537	1,572	1,472	1,526	1,310	1,630	1,661	1,502	2.0
• 광공업	4,380	4,423	4,387	4,322	4,387	4,512	4,489	4,518	4,532	4,512	2.8
(제조업)	4,368	4,410	4,375	4,310	4,376	4,503	4,476	4,507	4,525	4,505	2.9
• 건설업	2,090	1,995	2,107	2,134	2,125	2,123	2,071	2,164	2,128	2,129	0.2
• 도소매·음식숙박업	5,451	5,415	5,506	5,461	5,421	5,495	5,424	5,486	5,517	5,551	2.4
실업자	1,037	1,380	1,129	807	833	833	990	880	718	741	-11.0
실업률(계절조정)	3.7	4.3	3.7	3.1	3.4	2.9	3.0	2.8	2.7	3.0	-11.8

자료: 통계청

3) 고용 부문은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2023.01.11.)」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3.01.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3. 소비4)

- 2022년 3/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7% 증가함.
- 2022년 11월 소매 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판매가 모두 감소하여 전월대비 1.8% 감소함.
- 2022년 12월 소매판매는 카드 국내승인액 및 백화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소비동향

단위: %

구분	2021 ^p				2022 ^p					
	1/4	2/4	3/4	4/4	1/4	2/4	3/4	9월	10월	11월
민 간 소 비	1.2	3.3	0.0	1.5	-0.5	2.9	1.7			
소 매 판 매	1.7	2.2	0.8	1.1	-1.1	-1.1	1.2	-2.0	-0.2	-1.8
(내 구 재) ¹	0.9	0.4	-2.1	-0.2	-1.0	-2.1	2.7	5.3	-4.0	-1.4
(준내구재) ²	2.7	7.7	2.7	2.7	-4.9	4.1	1.1	-3.7	-2.9	-5.9
(비내구재) ³	1.8	1.4	1.6	1.1	0.5	-2.6	0.4	-5.0	3.0	-0.5

주 1. 내구재는 승용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등

2. 준내구재는 의류, 의복, 신발 등

3. 비내구재는 의약품, 화장품, 연료, 음식료품, 담배 등

4. 2021년, 2022년 소비동향은 잠정치임.

5. 표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 2022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88만 원으로 전기 대비 0.2%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함.
 - 이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0.6% 감소하였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 11.0%, 15.4% 증가하여 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음.
 - 비경상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하였음.

4) 소비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2.01.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전가구(2인 이상) 가계소득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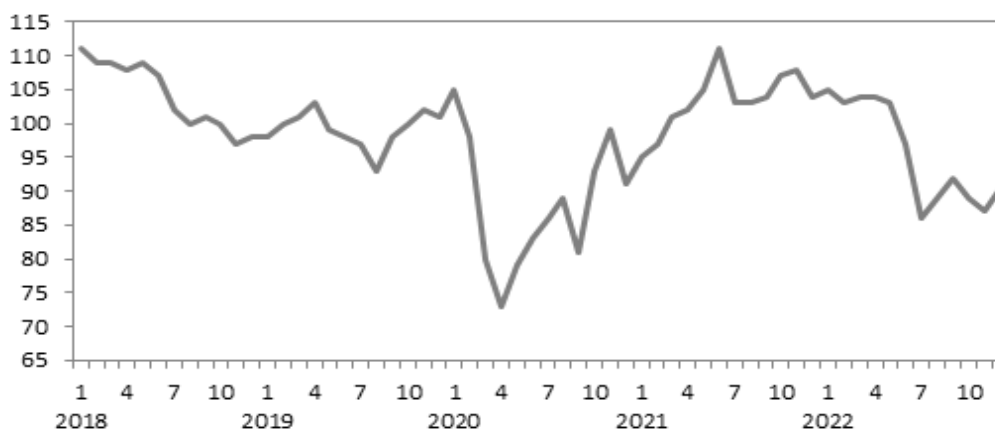
단위: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1				2022		
	1/4	2/4	3/4	4/4	1/4	2/4	3/4
소 득	-0.7	-1.4	7.6	7.0	11.1	13.4	3.1
경상소득	0.1	-1.5	7.7	6.9	11.5	13.3	2.7
(근로소득)	-3.5	4.9	5.7	5.7	12.6	6.3	5.9
(사업소득)	1.6	5.5	3.3	11.9	10.9	12.7	11.0
(재산소득)	-12.7	58.1	-27.5	8.9	-6.7	-26.1	15.4
(이전소득)	17.5	-31.4	25.3	5.4	8.3	52.2	-20.6
비경상소득	-30.0	6.3	-1.1	10.9	-7.8	19.2	32.3

자료: 통계청

- 2022년 12월 소비심리지수⁵⁾는 전월(87) 대비 3.4% 증가한 90이지만, 전년 동월(104) 대비 13.5% 감소하였음.

소비심리지수 월별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5)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표준화하여 합성한 지수로서 전반적인 소비자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4. 물가6)

- 2022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109.2로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함.
- 2022년 4/4분기 상품, 서비스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 4.1% 상승함.
 - 품목성질별로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모든 품목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 6.1%, 23.1% 상승하였음.
 - 2022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공업제품, 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농축수산물이 모두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5.0% 상승함.

부문별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

구분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102.5 (2.5)	101.5 (1.4)	102.0 (2.5)	102.7 (2.5)	103.8 (3.5)	107.7 (5.1)	105.4 (3.8)	107.5 (5.4)	108.8 (5.9)	109.2 (5.3)
상 품	103.1 (3.1)	101.9 (1.6)	102.4 (3.3)	103.2 (3.1)	105.0 (4.4)	110.0 (6.7)	106.7 (4.7)	110.1 (7.6)	111.4 (7.9)	111.9 (6.5)
농축수산물	108.7 (8.7)	108.4 (13.3)	107.7 (11.3)	109.3 (5.6)	109.6 (5.2)	112.8 (3.8)	111.3 (2.7)	111.6 (3.6)	116.7 (6.8)	111.7 (1.9)
공업 제품	102.3 (2.3)	100.7 (-0.4)	101.5 (2.2)	102.6 (2.8)	104.3 (4.6)	109.3 (6.9)	106.1 (5.4)	110.1 (8.5)	110.4 (7.5)	110.7 (6.1)
전기·수도·가스	97.9 (-2.1)	98.2 (-5.0)	98.2 (-4.8)	94.5 (0.3)	100.7 (1.4)	110.2 (12.6)	101.1 (2.9)	106.7 (8.7)	109.0 (15.3)	124.0 (23.1)
서 비 스	102.0 (2.0)	101.1 (1.3)	101.7 (1.8)	102.3 (2.0)	102.7 (2.8)	105.7 (3.7)	104.2 (3.0)	105.3 (3.5)	106.5 (4.1)	106.9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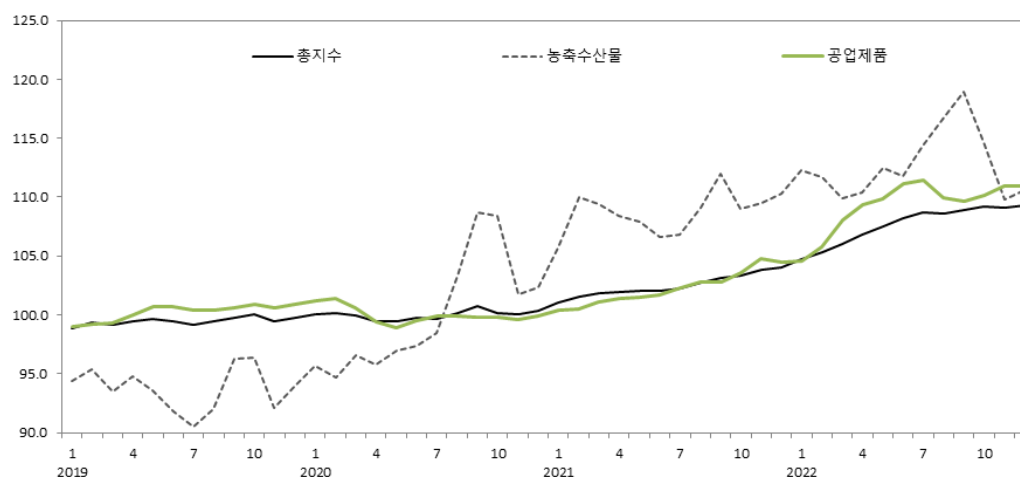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6) 물가 부문은 기획재정부 「최근경제동향(2023.01.13.)」,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2022.12.30.)」, 한국은행 「202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2023.01.20.)」, 「2022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2023.01.13.)」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2년 12월 기준 지출목적별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음식·숙박, 오락·문화, 기타 상품·서비스, 주택·수도·전기·연료, 가정용품·가사서비스, 교육, 의류·신발은 전월 대비 상승하였으며, 교통은 하락하였음. 통신, 주류·담배, 보건의 변동 없음.
 - 전년 동월 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기타 상품·서비스, 교통, 의류·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오락·문화, 보건, 교육, 통신, 주류·담배 모두 상승하였음.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20년=100)



자료: 통계청

- 2022년 4/4분기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11.7로 전년 동기 대비 1.9%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는 4.3% 감소함.
 -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하였음. 품목별로는 곡물을 제외한 채소, 과일, 기타농산물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2%, 1.9%, 4.8% 상승하였으며, 곡물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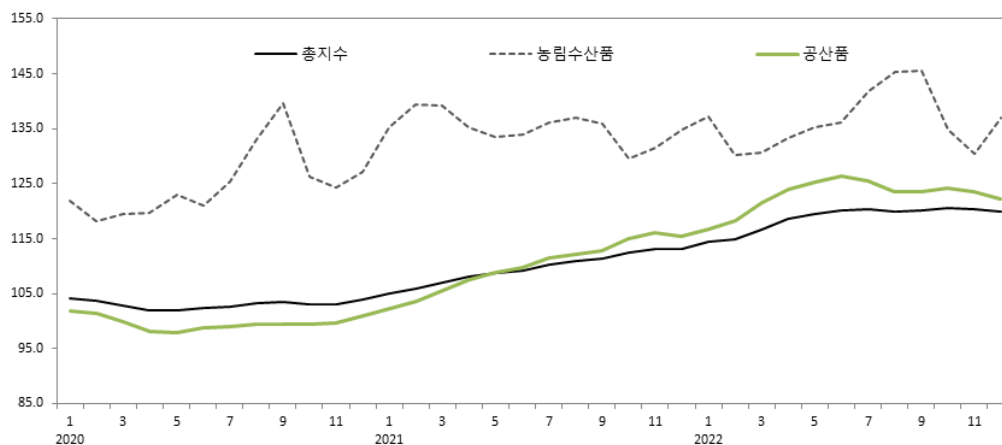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구분	2021					2022					등락률(%)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농축수산물	108.7	108.4	107.7	109.3	109.6	112.8	111.3	111.6	116.7	111.7	1.9	-4.3
농산물	108.3	112.0	107.3	107.4	106.7	110.9	111.3	107.1	117.2	107.9	1.2	-7.9
곡물	109.2	109.2	110.0	110.2	107.3	98.9	103.6	99.8	95.6	96.5	-10.1	0.9
채소	104.3	113.8	99.5	101.0	102.8	110.3	107.2	99.4	126.4	108.1	5.2	-14.5
과실	111.3	110.4	112.5	111.8	110.2	118.2	120.1	119.4	120.8	112.3	1.9	-7.0
기타농산물	113.0	115.8	115.4	112.0	108.8	109.9	110.2	107.4	107.9	114.0	4.8	5.6
축산물	112.7	105.4	111.0	116.5	117.8	119.5	115.2	121.9	121.7	119.0	1.1	-2.2
수산물	101.4	102.2	101.8	100.2	101.6	104.9	102.7	104.4	103.9	108.7	6.9	4.6

자료: 통계청

- 2022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120.3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함.
 - 2022년 4/4분기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134.1로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하였으며,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는 123.3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상승함.
- 202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농림수산물 등이 올랐으나 공산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0.3% 하락함.
 - 2022년 12월 농림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물, 수산물 등이 올라 전월 대비 4.9% 상승함.
 - 공산품은 음식료품 등이 올랐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1.0% 하락함.
 -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전력, 가스 및 증기가 올라 전월 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서비스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이 내렸으나,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함.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변화추이(2015년=100)



자료: 통계청

- 2022년 4/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125.4로 전기 대비 3.1%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함.
- 2022년 12월 수출물가지수는 118.0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대비 6.0%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4.6% 하락함.
- 2022년 4/4분기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36.4로 전기 대비 3.7%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7.4% 상승함. 12월 농림수산물 수출물가지수는 133.8로 전월 대비 2.1% 하락함.
- 2022년 4/4분기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25.4로 전기 대비 3.1%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기 대비 8.4% 상승하였으며, 12월 공산품 수출물가지수는 118.0으로 전월 대비 6.0% 하락함.

부문별 수출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108.3 (14.3)	98.3 (1.5)	106.1 (12.3)	113.0 (18.9)	115.7 (25.0)	126.3 (16.6)	119.9 (22.0)	130.5 (23.0)	129.4 (14.5)	125.4 (8.4)
농림수산물	119.0 (4.3)	108.7 (-6.8)	112.9 (-1.9)	127.3 (11.2)	127.0 (15.3)	136.3 (14.6)	130.5 (20.0)	136.7 (21.1)	141.7 (11.3)	136.4 (7.4)
농 산 물	100.9 (-11.7)	105.5 (-8.6)	101.9 (-13.8)	108.4 (-5.7)	87.7 (-19.0)	100.3 (-0.5)	93.0 (-11.9)	112.0 (9.9)	108.6 (0.2)	87.8 (0.1)
공 산 품	108.2 (14.3)	98.3 (1.6)	106.1 (12.3)	112.9 (18.9)	115.7 (25.0)	126.3 (16.7)	119.9 (22.0)	130.4 (23.0)	129.4 (14.5)	125.4 (8.4)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 2022년 4/4분기 수입물가지수는 147.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상승하였지만, 전기 대비 2.7% 하락함.
- 2022년 12월 수입물가지수는 138.6으로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광산물,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6.2%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함.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입가격)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2.0% 하락하였지만,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함.
 - 2022년 12월 기준 원재료의 경우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9.9% 하락하였으며, 자본재 및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2.9%, 3.0% 하락함. 또한, 중간재의 경우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내려 전월 대비 4.7% 하락함.
- 2022년 12월 농림수산물 수입물가지수는 130.5로 전월 대비 5.2%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함.

부문별 수입물가지수(2015년=100)

구분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총 지 수	117.5 (17.6)	105.9 (0.8)	112.8 (14.6)	122.0 (22.8)	129.2 (33.6)	147.9 (25.9)	140.2 (32.4)	152.4 (35.2)	151.6 (24.2)	147.6 (14.2)
농림수산물	116.6 (13.5)	106.1 (2.1)	114.0 (9.8)	120.9 (18.3)	125.4 (24.4)	139.9 (20.0)	132.5 (24.8)	144.5 (26.7)	144.4 (19.4)	138.3 (10.3)
농 산 물	123.6 (23.4)	110.4 (11.4)	118.1 (19.5)	128.5 (28.2)	137.5 (34.0)	157.7 (27.5)	149.4 (35.4)	163.1 (38.0)	160.7 (25.1)	157.4 (14.5)
축 산 물	119.4 (16.5)	107.5 (2.1)	118.9 (15.0)	124.2 (25.0)	127.1 (24.7)	134.8 (12.8)	130.7 (21.6)	138.7 (16.6)	140.5 (13.2)	129.1 (1.6)
공 산 품	111.5 (9.5)	104.2 (0.4)	108.5 (6.1)	114.6 (12.1)	118.9 (20.1)	128.8 (15.5)	124.7 (19.7)	130.5 (20.2)	130.6 (14.0)	129.3 (8.8)

주: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5. 금융·환율⁷⁾

- 2022년 11월 원계열 기준 협의통화(M1, 평잔)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2.7% 감소)함.
- 2022년 11월 원계열 기준 광의통화(M2, 평잔)는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 (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7% 증가)함.
 - 금융상품별로는 정기예적금 등이 증가한 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등이 감소함.
 - 경제주체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타, 기업 등이 증가함.
- 2022년 11월 금융기관유동성(Lf, 평잔)은 원계열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계절조정계열 기준 전월 대비 0.4% 증가)함.

통화지표 증감률(평균잔액기준)

단위: %(전년 동월 대비)

구분	2021	2022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M1 ¹⁾	15.6	14.3	11.6	11.3	9.5	8.7	7.8	5.3	2.5	-0.4	-3.5	-6.8
M2 ²⁾	13.2	12.7	11.8	10.8	9.4	9.3	8.8	8.0	7.2	6.6	5.9	5.4
Lf ³⁾	10.7	10.6	9.9	9.1	8.0	8.1	7.7	7.0	6.5	6.0	5.6	5.0
본원통화 ⁴⁾	15.0	15.6	11.9	11.5	14.0	12.4	9.8	13.7	9.8	9.0	7.8	4.4

주 1. M1: 은행 및 비은행의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투신사 MMF

2. M2: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예수금

3. 기존의 M3가 유동성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Lf로 개칭

4. 본원통화: 화폐발행액(기념화폐 제외) + 지급준비예치금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7) 금융·환율 부문은 한국은행 「2022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2023.01.17.)」과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2023.01.12.)」, 「2022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2023.01.12.)」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 2022년 12월 국고채금리는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하락함.
 - 회사채금리는 국고채 금리 하락, 시장안정대책 효과 등으로 우량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함.
- 단기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기준금리 인상선반영, 연초 기관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 등으로 하락함.
 - CP금리는 시장안정대책 효과에 따른 신용경계감 완화 등이 가세하여 큰 폭으로 하락함.
- 코스피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지속 우려, 국내외 주요기업 실적 부진 전망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2023년 1월 들어 반도체 공급과잉 완화 기대감 등으로 반등함.

금리동향

단위: 연 %

구분	2021	2022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고채(3년)	1.8	2.1	2.3	2.4	2.9	3.0	3.5	3.2	3.2	3.9	4.2	3.9	3.6
회사채 ¹	2.4	2.6	2.9	3.0	3.6	3.8	4.2	4.1	4.2	4.9	5.4	5.5	5.3
CD유통수익률(91일)	1.3	1.4	1.5	1.5	1.6	1.8	2.0	2.4	2.8	3.0	3.7	4.0	4.0
콜금리 ²	1.0	1.2	1.2	1.2	1.3	1.5	1.7	2.0	2.3	2.5	3.0	3.1	3.2

주 1. 회사채: 장외3년

2. 콜금리: 무담보콜금리(1일물)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22년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21원 상승한 1,359원 임.
 - 2022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에 따른 미 달러화 약세, 중국 경제 리오프닝 및 경기부양 기대감, 외환 수급여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하락함.
- 2022년 4/4분기 원/100엔, 원/위안 환율은 각각 961원, 191원으로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원/유로 환율은 1,387원으로 전기 대비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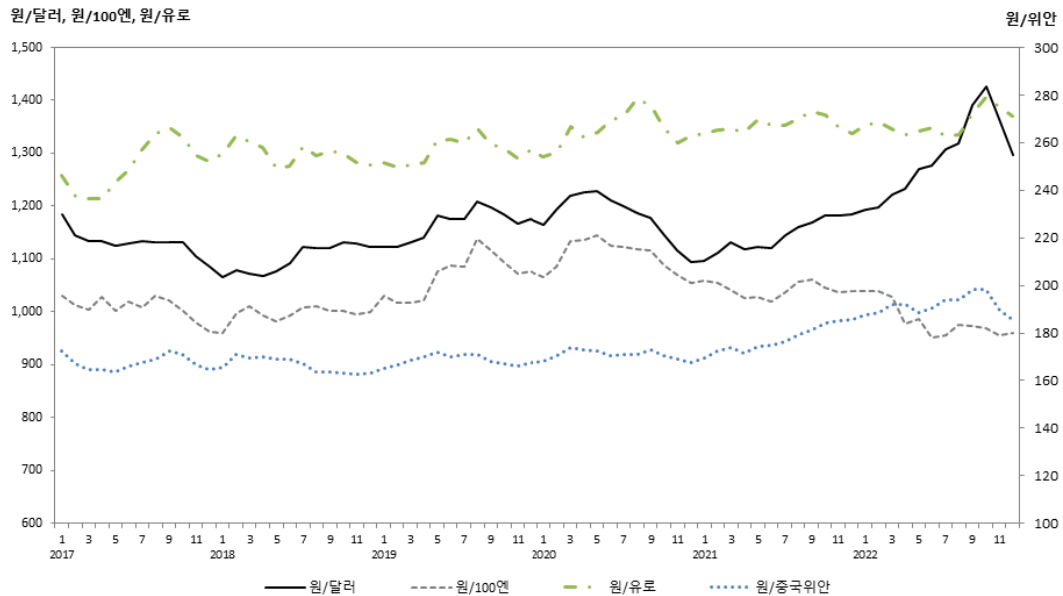
- 2022년 12월중 원/달러 환율의 전일대비 변동률은 전월 대비 하락함.

원화 환율 동향

구분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144	1,114	1,121	1,157	1,183	1,292	1,205	1,260	1,338	1,359	1,427	1,364	1,296
원/100엔	1,041	1,051	1,024	1,051	1,040	983	1,036	972	968	961	969	957	959
원/유로	1,353	1,343	1,351	1,365	1,353	1,357	1,352	1,342	1,348	1,387	1,405	1,388	1,371
원/위안	177	172	174	179	185	192	190	190	195	191	198	190	185

주: 평균 환율 기준
자료: 한국은행

원화 환율 추세



자료: 한국은행.

6. 세계경제⁸⁾

- 미국 경제는 물가상승률 둔화 가운데, 고용시장의 견조한 흐름 속 통화 긴축기 조 지속에 따른 산업생산이 감소와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중국경제는 봉쇄지역 확대로 생산소비투자가 시장예상치를 하회하고, 수출은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물가 상승폭은 소폭 확대되었음.
- 일본 경제는 산업생산 둔화폭은 소폭 축소되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매판매도 축소로 전환되었음.
- 유로존 경제는 산업생산이 다소 부진한 가운데 심리지표 및 소비는 소폭 개선되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폭도 축소되었음.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지표	2021					2022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미국	실질GDP(전기비 연율)	5.9	6.3	7.0	2.7	7.0	-1.6	-0.6	3.2		
	산업생산(전기비)	4.9	0.8	1.6	0.9	1.2	1.2	1.2	0.4	-0.1	-0.2
	소매판매(전기비)	19.6	7.6	6.6	-0.1	2.5	3.2	2.6	0.8	1.3	-0.6
	실업률(계절조정)	5.4	6.2	5.9	5.1	4.2	3.8	3.6	3.6	3.7	3.6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4.7	1.9	4.8	5.3	6.7	8.0	8.6	8.3	7.7	7.1
중국	실질GDP(전년동기비)	8.4	18.3	7.9	4.9	4.0	4.8	0.4	3.9		
	산업생산(전년동기비)	9.6	24.5	9.0	4.9	3.9	6.5	0.6	4.8	5.0	2.2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2.5	33.9	14.1	5.1	3.5	3.3	-4.9	3.5	-0.5	-5.9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9	0.0	1.1	0.8	1.8	1.1	2.2	2.7	2.1	1.6
일본	실질GDP(전기비)	2.1	-0.1	0.3	-0.5	1.2	-0.5	1.1	-0.2		
	산업생산(전기비)	5.6	2.5	0.3	-1.9	0.2	0.8	-2.7	5.9	-3.2	-0.1
	소매판매(전기비)	1.9	-0.1	-0.8	0.4	1.5	-0.9	1.8	1.4	0.2	-1.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2	-0.5	-0.7	-0.2	0.5	0.9	2.4	2.9	3.7	3.8
유로존	실질GDP(전기비)	5.3	-0.1	2.0	2.3	0.5	0.6	0.8	0.3		
	산업생산(전기비)	8.0	1.4	-0.3	-0.8	0.1	0.8	0.2	0.3	-2.0	
	소매판매(전기비)	5.1	-1.9	4.5	1.1	0.8	-0.4	-0.5	-0.5	-1.5	0.8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6	1.1	1.8	2.8	4.6	6.1	8.0	9.3	10.6	10.1

자료: 기획재정부

8) 세계경제 부문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최근경제동향(2023.01.13.)」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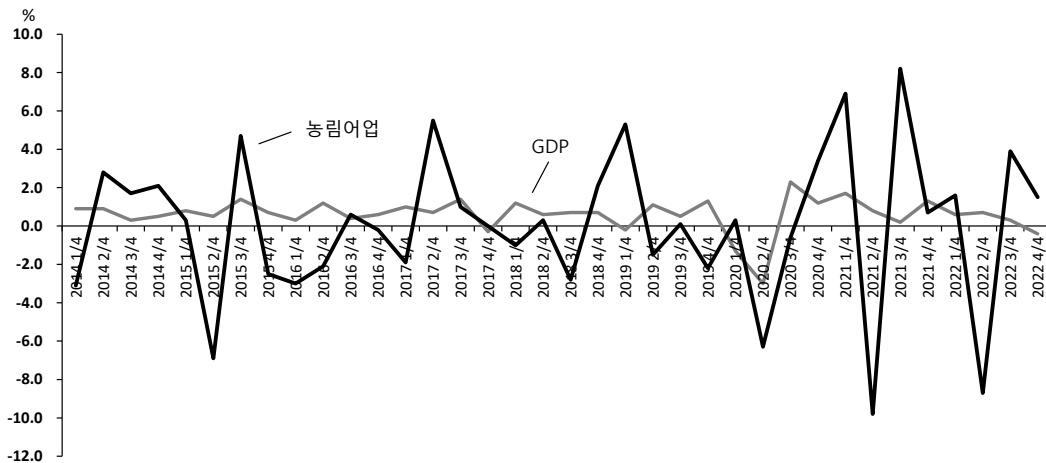
II. 농촌경제 동향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농림어업 경제성장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중 농림어업은 2022년 4/4분기 8조 1,3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전기 대비 1.5% 증가함.
 - 2022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91조 6,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전기 대비 0.4% 감소함.

농림어업 경제성장률 추이(2015년 연쇄가격 기준)



주: 계절조정계열 전기 대비 증감률이며, 2020년 3/4분기, 4/4분기,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재휘 연구원(raccoon_kjh@krei.re.kr), 이형용 전문위원(lhy2813@krei.re.kr)이 작성함.

2. 농촌 물가

2.1. 농가판매가격지수

- 2022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9.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전기 대비 6.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축산물, 특용작물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청과물, 화훼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농가판매가격지수(2015년=100)

구 분	가중치	2020	2021	2021		2022		등락률(%)	
		연간	연간	3/4	4/4	3/4	4/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17.0	128.7	126.2	122.4	127.5	119.3	-2.5	-6.4
곡물	200.1	127.5	138.1	127.9	129.6	113.2	117.6	-9.3	3.9
-미국	146.0	129.0	139.0	138.1	130.7	108.2	115.0	-12.0	6.3
-맥류	8.7	104.7	87.8	79.4	93.8	91.7	90.7	-3.3	-1.1
-두류/잡곡	27.5	137.1	164.0	110.0	160.6	142.6	150.9	-6.0	5.8
-서류	17.9	110.9	115.8	95.9	90.7	120.0	100.6	10.9	-16.2
청과물	314.0	133.6	141.0	140.6	126.7	160.2	132.6	4.7	-17.2
-채소	196.1	118.6	122.5	130.8	125.7	156.3	142.0	13.0	-9.1
-과수	117.9	158.5	171.9	156.9	128.3	166.6	116.9	-8.9	-29.8
축산물	378.3	101.8	116.8	120.9	115.5	110.0	109.3	-5.4	-0.6
-가축	240.7	105.5	116.3	120.6	117.7	108.1	105.1	-10.7	-2.8
-기타	137.6	95.3	117.6	121.4	111.7	113.4	116.6	4.4	2.8
기타농산물	107.6	102.2	117.5	99.9	120.8	120.3	118.6	-1.8	-1.4
-특용작물	64.7	97.5	115.4	103.9	112.7	116.3	95.6	-15.2	-17.8
-화훼	39.3	109.6	122.4	93.2	135.5	127.3	155.7	14.9	22.3
-부산물	3.6	106.0	102.0	100.8	105.5	113.2	128.7	22.0	13.7

자료: 통계청

- 곡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7.6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하락하였으나, 전기 대비 3.9% 상승함.
 - 미곡과 찹쌀, 햅쌀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0%, 12.6%, 9.0% 하락함.
 - 맥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보리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6.1% 하락하여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함.
 - 두류/잡곡의 경우 옥수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8.0% 상승하였으나 팔과 검정콩 농가판매가격지수가 각각 43.1%, 14.9% 하락 하여 전년 동기 대비 6.0% 하락함.
 - 서류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감자, 고구마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8%, 4.6%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9% 상승함.
- 채소 판매가격지수는 142.0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상승하였으나, 전기 대비 9.1% 하락함.
 - 양배추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96.6% 상승하였으나 시금치, 상추, 깻잎 등 다른 품목 가격은 하락하여 엽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임.
 - 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의 경우 무, 당근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0.0%, 102.3%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7.0% 상승함.
 - 마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6% 하락하였지만, 건고추, 양파, 생강 농가판매가격지수의 경우 각각 37.2%, 57.7%, 123.2% 상승하여 조미채소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5% 상승함.
 - 과채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1% 하락하였으며, 특히 오이, 호박, 토마토(일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2%, 24.8%, 9.9% 하락함.

- 과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6.9로 전년 동기 대비 8.9%, 전기 대비 29.8% 하락함.
 - 사과, 감귤, 자두, 매실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각각 2.4%, 2.2%, 14.9%, 13.7% 상승하였지만,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농가판매가격지수는 각각 18.0%, 14.9%, 8.8%, 24.2% 하락함.
 - 배, 포도와 단감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기 대비 각각 27.5%, 29.1%, 48.8% 하락하여 배, 포도, 단감의 2022년 4/4분기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모두 하락함.
-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9.3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전기 대비 0.6% 하락함.
 - 성돈과 자돈, 육계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3.7%, 31.7% 상승하였지만, 한우(암, 수), 육우, 한우 송아지(암, 수), 육우 송아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각각 21.0%, 20.2%, 9.7%, 34.8%, 17.5%, 67.2% 하락하여 가축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7% 하락함.
 - 기타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4% 상승하였으며, 계란, 우유, 벌꿀 농가판매가격지수가 각각 6.6%, 2.5%, 6.7% 상승함.

2.2. 농가구입가격지수

- 2022년 4/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8.1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전기 대비 0.3% 상승함.
-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는 15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 전기 대비 2.6% 상승함.
 - 종자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4%, 117.9%, 7.9%, 25.1%, 20.6% 상승함.

- 노무비와 경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각각 159.7, 13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3%, 18.2% 상승하였지만, 자산구입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5.7로 전년 동기 대비 9.5% 하락함.
- 농업용품과 농촌임료금을 통해 산출된 2022년 4/4분기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149.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8%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15=100)

구 분	가중치	2020	2021	2021		2022		등락률(%)	
		연간	연간	3/4	4/4	3/4	4/4	전년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총 지수	1000.0	106.1	111.1	112.5	113.7	127.7	128.1	12.7	0.3
가계용품	484.8	106.1	108.9	109.2	110.1	115.3	115.6	5.0	0.3
재료비	250.6	101.8	110.0	113.7	115.4	148.5	152.3	32.0	2.6
-종자종묘	27.6	115.9	116.1	117.8	117.6	126.6	128.7	9.4	1.7
-비료비	39.1	77.9	83.7	88.8	88.8	193.5	193.5	117.9	0.0
-농약비	29.3	118.9	120.8	120.8	120.8	130.4	130.4	7.9	0.0
-사료비	136.0	102.1	113.6	117.3	120.5	144.1	150.7	25.1	4.6
-영농자재비	18.7	102.6	112.8	122.4	122.4	147.6	147.6	20.6	0.0
노무비	45.0	124.2	135.3	138.3	140.9	158.0	159.7	13.3	1.1
경비	129.0	103.3	107.5	108.3	112.2	135.6	132.6	18.2	-2.2
-영농광열비	32.6	87.1	108.6	111.3	127.0	200.7	189.0	48.8	-5.8
-임차료	40.5	112.4	114.5	114.8	114.6	117.9	117.8	2.8	-0.1
-농작업위탁비	42.5	108.5	103.4	103.6	103.3	103.3	103.3	0.0	0.0
-판매자재비	13.3	98.0	96.5	96.5	96.5	132.8	132.8	37.6	0.0
자산구입비	90.6	113.2	118.6	120.3	116.8	110.6	105.7	-9.5	-4.4
-기계구입	58.9	104.3	104.5	104.8	105.0	105.6	106.3	1.2	0.7
-가축구입비	31.7	129.6	144.9	149.0	138.6	120.0	104.5	-24.6	-12.9

자료: 통계청

2.3. 농가교역조건지수

- 2022년 4/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3.1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전기 대비 6.7%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하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 상승했기 때문임.

농가교역 및 경영조건지수

구 분	2021		2022		등락률(%)	
	3/4	4/4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농가판매가격(A)	126.2	122.4	127.5	119.3	-2.5	-6.4
농가구입가격(B)	112.5	113.7	127.7	128.1	12.7	0.3
농업투입재가격(C)	115.0	117.8	147.5	149.3	26.8	1.2
농가교역조건(A/B×100)	112.2	107.7	99.8	93.1	-13.5	-6.7
농가경영조건(A/C×100)	109.7	103.9	86.4	79.9	-23.1	-7.6

3. 농림어업 취업자

- 2022년 4/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0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으나, 전기 대비 9.6% 감소함.
 -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151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였으나 전기 대비 0.5% 감소함.
 - 농림어업 취업자들 중 남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91만 4천 명, 여성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58만 8천 명임.
 - 농가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176만 9천 명임.

농림어업 취업자 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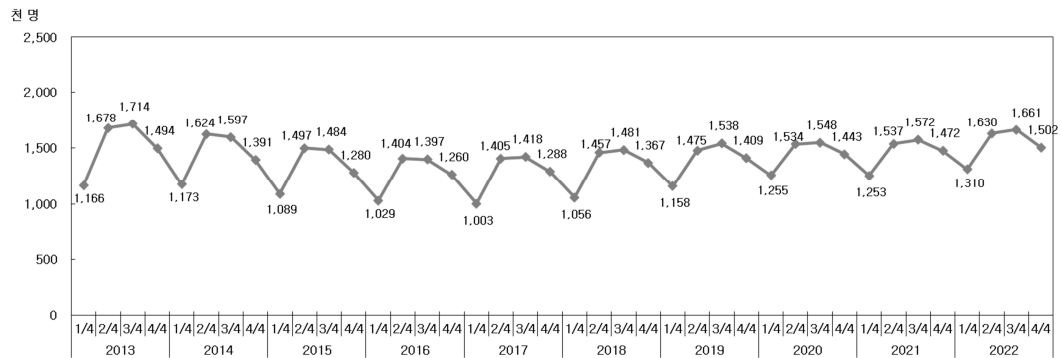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 분		2021	2022		증감률(%)	
		4/4	3/4	4/4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취 업 자	전산업	27,611	28,425	28,216	2.2	-0.7
	(계절조정)	(27,531)	(28,179)	(28,132)	2.2	-0.2
	농림어업	1,472	1,661	1,502	2.0	-9.6
	(계절조정)	(1,487)	(1,520)	(1,513)	1.7	-0.5
	남성	910	994	914	0.4	-8.0
	여성	561	667	588	4.8	-11.8
	농가	1,772	1,893	1,769	-0.2	-6.6
	농가남성	1,024	1,065	1,007	-1.7	-5.4
	농가여성	748	828	762	1.9	-8.0

주: ()안은 계절조정 값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값임.
자료: 통계청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 증가하다가 4/4분기에서 감소하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2년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추세를 따르고 있음

농림어업 취업자 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4. 농축산물 수출입

4.1. 수출 동향

- 2022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량은 9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함.
 - 곡류, 과일류, 채소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2%, 5.1%, 3.5% 감소하여 전체 농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함.
 - 축산물 수출량은 포유육류와 낙농품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4%, 12.8%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함.
 - 임산물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7.1%, 전기 대비 34.9% 증가함.
- 2022년 4/4분기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21억 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함.
 - 곡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하였으나, 과일류, 채소류 수출액은 각각 16.8%, 8.2% 감소하여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함.
 - 축산물 수출액은 포유육류와 낙농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6%, 10.3%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함.
- 2022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7억 5,554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 5.2%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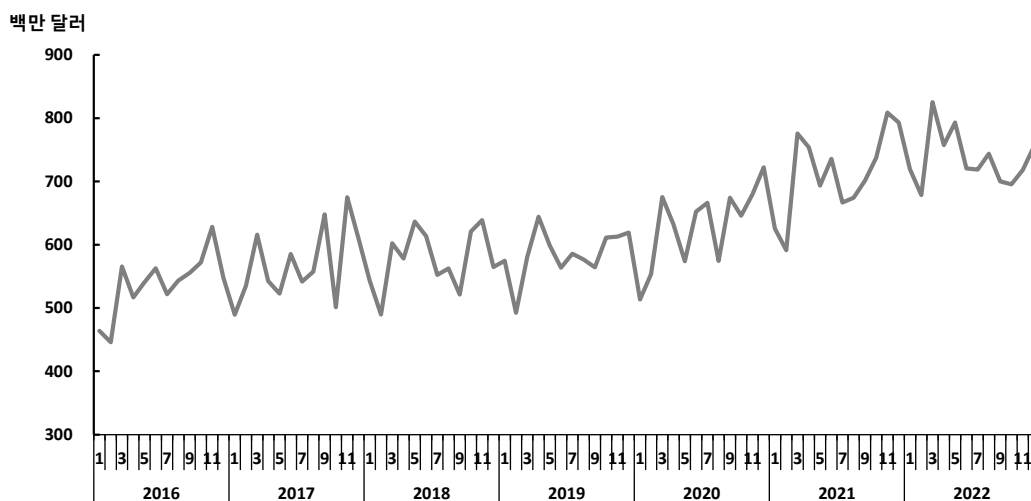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3/4		4/4		3/4		4/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966	2,043	1,027	2,340	958	2,163	990	2,169	-3.6	-7.3
농산물	778	1,788	846	2,068	782	1,874	778	1,901	-8.0	-8.1
-곡류	11	9	14	11	10	10	10	12	-31.2	16.3
-과실류	30	94	51	163	32	97	49	136	-5.1	-16.8
-채소류	38	102	36	122	24	82	35	112	-3.5	-8.2
축산물	47	137	51	156	54	155	46	146	-8.2	-6.8
-포유육류	2	10	2	10	2	9	2	8	-12.4	-15.6
-가금육류	10	16	14	24	20	31	16	27	13.7	12.7
-낙농품	9	38	10	50	8	39	9	45	-12.8	-10.3
임산물	140	118	130	116	123	133	165	123	27.1	6.2
수 산 물	210	710	261	862	220	735	208	708	-20.2	-17.8
전 체	1,176	2,753	1,287	3,202	1,178	2,898	1,198	2,878	-6.9	-10.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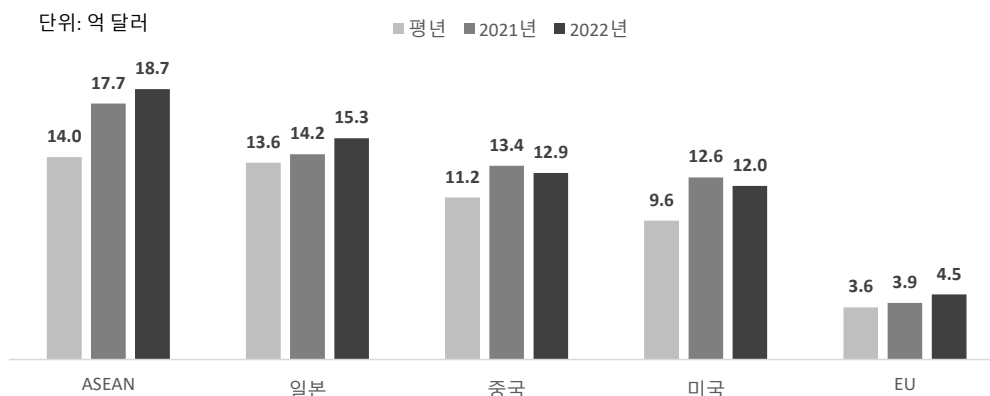
농림축산물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22년 농축산물 수출액은 87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FTA 체결국으로의 수출액은 70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2% 증가함.
 - 주요 수출대상국 중 ASEAN, 일본, EU 수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그 중 對 EU 수출액이 15.0%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2022년 4/4분기 농수산물의 수출산업경기 전망지수(EBSI)는 74.5로 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수출 상담·계약(59.6)과 국제수급(65.7)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²⁾.
 - 주요 수출 애로 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27.4%)과 물류비용 상승(20.4%)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주요 수출 대상국별 수출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 2022년 4분기」.

2) 한국무역협회, '2022년 4/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2022.10.5).

4.2. 수입 동향

- 2022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량은 1,385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임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와 비슷하나 축산물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함.
- 2022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113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함.
 -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임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4.9% 감소함.
 - 농산물 중 곡류 수입액은 보리, 옥수수 등의 수입액이 많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함.
 - 채소류 수입액은 토마토, 양파, 마늘 등 수입액 비중이 큰 품목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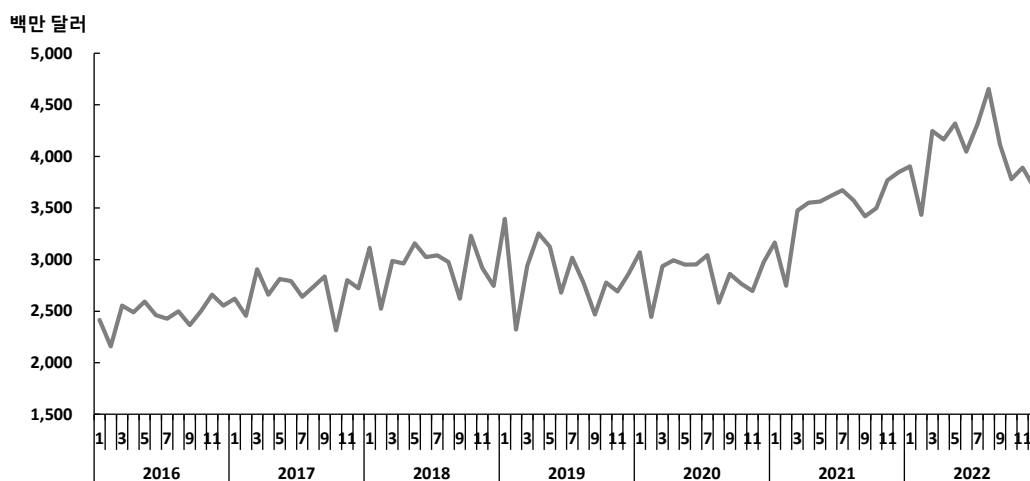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1				2022				전년 동기 대비	
	3/4		4/4		3/4		4/4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3,336	10,663	13,836	11,119	14,189	13,083	13,852	11,372	0.1	2.3
농 산 물	8,882	6,280	9,232	6,771	9,542	7,876	9,264	7,234	0.3	6.8
-곡류	3,965	1,306	4,449	1,486	4,280	1,839	4,339	1,723	-2.5	16.0
-과실류	270	476	252	435	255	462	214	371	-15.1	-14.8
-채소류	269	256	300	301	334	319	360	315	19.9	4.7
축 산 물	457	2,443	451	2,409	559	3,228	419	2,294	-7.0	-4.8
-포유육류	245	1,535	239	1,509	318	2,032	234	1,324	-2.1	-12.2
-가금육류	44	105	44	108	78	239	44	132	-0.9	21.9
-낙농품	97	350	94	357	106	455	90	417	-4.0	16.8
임 산 물	3,996	1,941	4,154	1,940	4,088	1,979	4,168	1,844	0.4	-4.9
수 산 물	1,539	1,404	1,935	1,849	1,668	1,662	1,748	1,750	-9.7	-5.3
전 체	14,874	12,067	15,771	12,967	15,857	14,745	15,600	13,122	-1.1	1.2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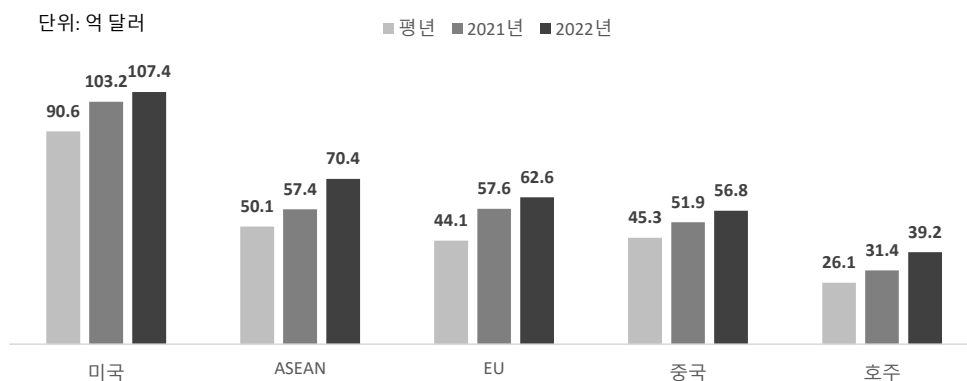
- 2022년 12월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37억 14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9%, 전월 대비 4.9% 감소함.

농림축산물 수입 추이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수입 대상국별 수입액 추이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동향 2022년 4분기」.

- 2022년 농축산물 수입액은 484억 1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402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5.5%, 12.9% 증가함.
 - 주요 농식품 수입국으로부터 수입액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함(미국 4.1%, ASEAN 22.7%, EU 8.7%, 중국 9.4%, 호주 24.9%)

4.3. 순수입 동향

- 2022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량은 1,286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함.
 - 농산물 순수입량은 848만 6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함.
 - 축산물 순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37만 3천 톤임.
- 2022년 4/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92억 200만 달러임.
 - 농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하였으나, 축산물, 임산물 순수입액은 4.6%,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농림축산물 순수입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구 분	2021년 4/4분기		2022년 4/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축산물	12,810	8,779	12,862	9,202	0.4	4.8
농 산 물	8,386	4,703	8,486	5,333	1.2	13.4
축 산 물	400	2,253	373	2,149	-6.8	-4.6
임 산 물	4,024	1,824	4,003	1,721	-0.5	-5.6
수 산 물	1,674	986	1,540	1,042	-8.0	5.6
전 체	14,484	9,766	14,402	10,244	-0.6	4.9

주: 순수입=(수입-수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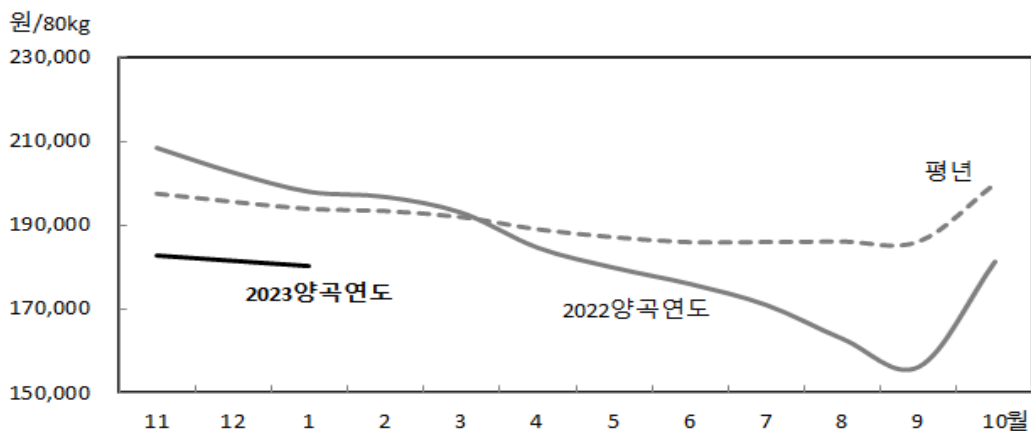
Ⅲ.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곡물¹⁾

1.1. 쌀

산지 쌀 가격 추이



주: 평년가격은 2018~2022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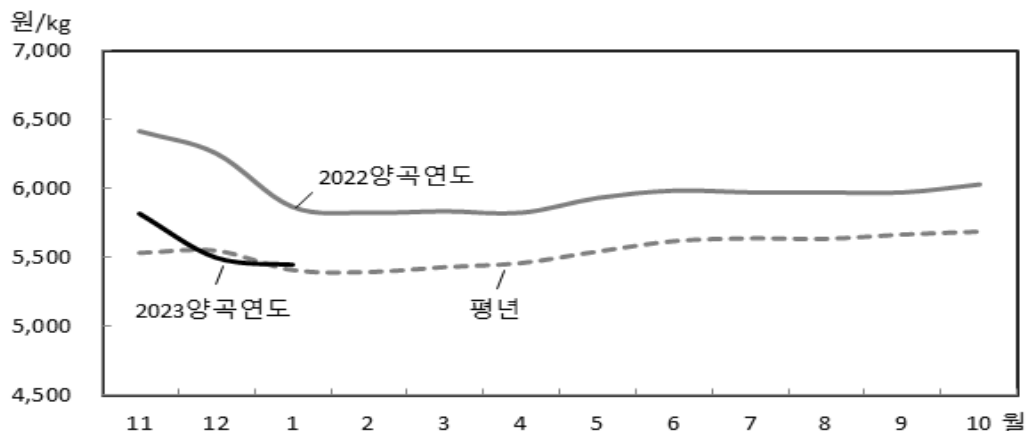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쌀 가격은 18만 1,819원/80kg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 대비 각각 12.9%, 7.5% 하락
 - 이는 정부의 역대 최대 물량 격리에도 2021년산 역계절진폭으로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산지유통업체가 많아졌기 때문임.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조남욱 전문연구원(ukjo@krei.re.kr), 최선우(opendoyon@krei.re.kr), 김창수(kcs87@krei.re.kr), 이진아(jina1008@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쌀 가격은 18만 339원/80kg으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6, 9.0% 하락
 - 1분기 쌀 가격은 정부 매입이 완료되고, 산지 재고도 전년보다 적기 때문에 전분기보다 상승 예상
 - * 1월 말 기준, 산지유통업체 재고 전년 대비 24% 감소(33만 6천 톤)

1.2. 콩

국산 콩(백태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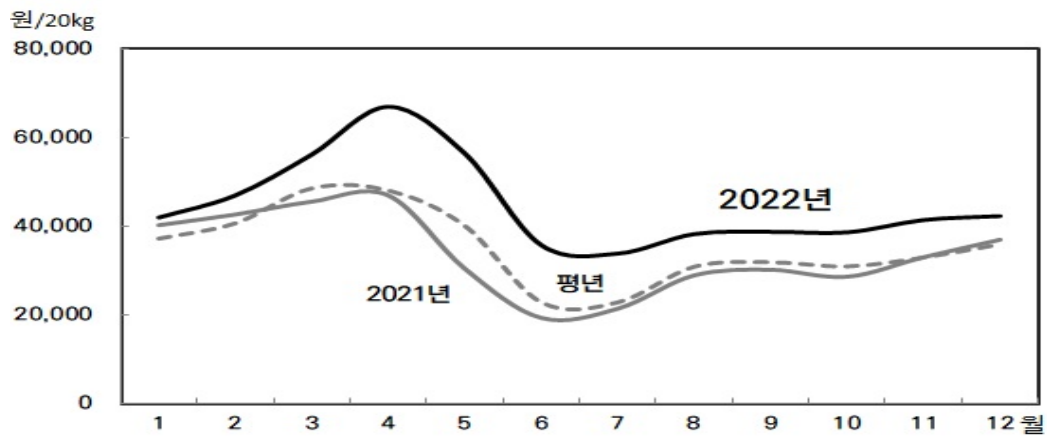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2018~2022양곡연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콩 가격은 5,784원/(백태 상품 kg)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9.7% 하락
 - 이는 2022년산 면적 증가로 생산이 전년보다 17.3% 늘어났기 때문임.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콩 가격은 5,453원/(백태 상품 kg)으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9%, 7.1% 하락

- 1분기 가격은 정부 매입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났음에도 시장공급물량(전년 대비 1~4% ↑)증가가 예상되어 전 분기 대비 하락 전망

1.3. 감자

감자(수미 상품) 도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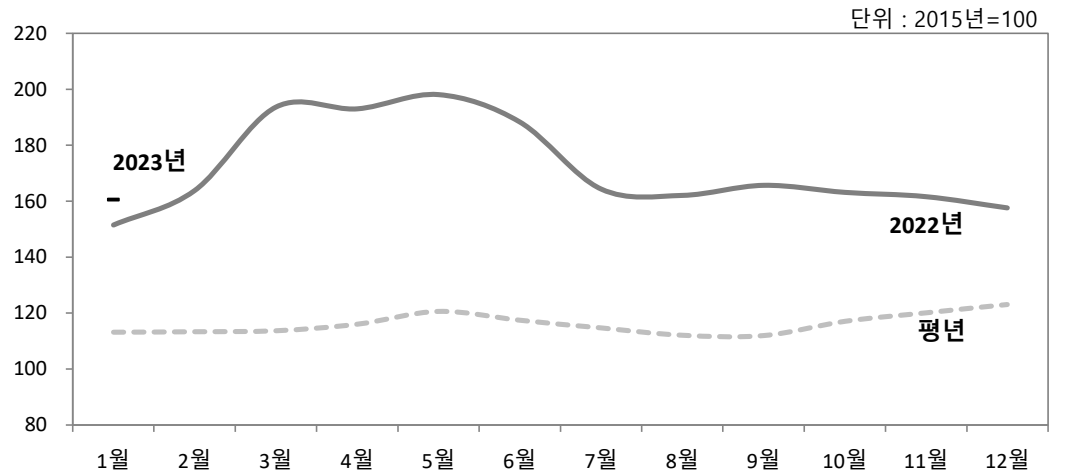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은 2017~2021년 기간 중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감자 가격은 40,818원/(수미 상품 20kg)으로 전년 및 평년 동기 대비 각각 23.5%, 22.9% 상승
 - 이는 노지 봄감자 작황부진이 저장감자 출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임.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감자 가격은 49,815원/(수미 상품 20kg)으로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7%, 18.6% 상승
 - 1분기 감자 가격은 저장감자 부족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높겠으나, 정부 구매 사업에 따른 시장 방출 가능 물량이 늘어나 상승폭은 제한적일 전망

1.4. 국제곡물²⁾

국제곡물 선물가격 추이



주: 선물 가격지수는 근접월 인도분 선물가격에 곡물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평년 가격은 2018~2022년의 해당 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시카고 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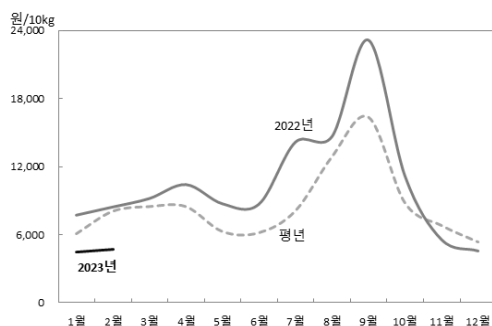
- 2022년 4/4분기 동향
 - 2022년 4/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2015년=100)는 전 분기 대비 2.0% 하락한 161.0임.
 - 흑해 곡물 수출 계약 연장, 세계 경기 침체와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요 부진 우려 등이 4/4분기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 2023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1/4분기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는 전 분기와 비슷한 161.0으로 전망됨.
 - 흑해지역 곡물 수출 지속,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진 영향은 가격 하락 요인이거나, 남미의 고온·건조한 기상으로 옥수수, 콩 생산량 전망치 하향 조정, 미국 겨울밀 주산지 가뭄 등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2)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지연 전문연구원(jykim12@krei.re.kr), 이마숙(lms1214@krei.re.kr), 윤성주(ysj0811@krei.re.kr), 강윤경(kangyj@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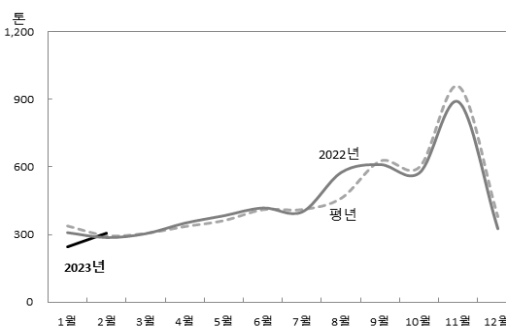
2. 엽근채소³⁾

2.1. 배추

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추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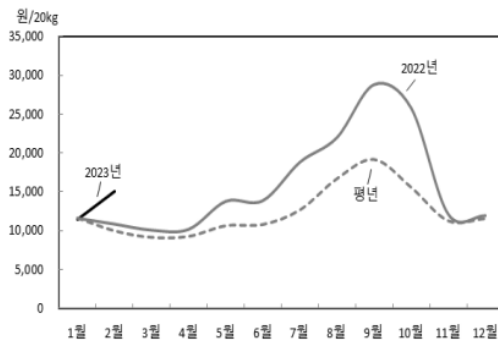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배추 평균 도매가격 7,090원/10kg (전년 대비 9.7% 하락, 평년 대비 7.7% 상승)
 - 가을 및 겨울배추 생산량 증가하였으나, 10월 출하되는 여름배추 가격 높아 4분기 평균 가격 평년 대비 상승
 - * 2022년 가격: (10월) 11,150원/10kg, (11월) 5,560원, (12월) 4,560원
 - * 4분기 가격: (2022년) 7,090원/10kg, (2021년) 7,850원, (평년) 6,580원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산 겨울배추 생산량 32만 3천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1%, 6.6% 증가)
 - * 재배면적 3,635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 11.1% 감소)

3)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박영구 전문위원(ygpark@krei.re.kr), 박지원(jione1105@krei.re.kr), 남호진(namho1992@krei.re.kr), 김서영(ksy1208@krei.re.kr), 백호승(white77@krei.re.kr), 오현주(hyundu215@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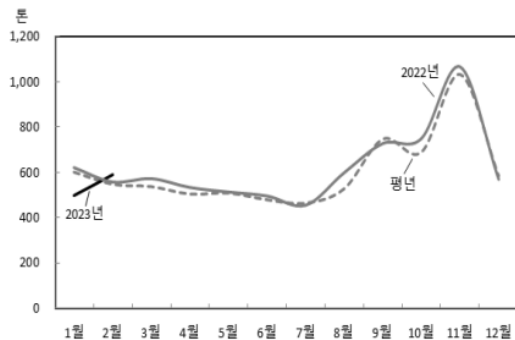
- * 단수 8,894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8%, 19.9% 증가)
- * 생육기(11~12월) 기상 여건 양호하여 단수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
- 1분기 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8%, 7% 증가
- 1분기 배추 도매가격 전년(8,450/10kg) 및 평년(7,690원) 대비 하락
- 2023년 봄배추 재배의향면적
 - 시설봄배추 재배의향면적 302ha(전년 및 평년 대비 4.8%, 26.4% 감소)
 - 노지봄배추 재배의향면적 3,135ha(전년 대비 7.4% 감소, 평년 대비 9.6% 증가)
- * 2022년산 겨울배추 저장 출하량 증가 전망으로 봄배추 출하기 기대가격 낮아 전년 대비 재배의향 감소

2.2. 무

무 도매가격 동향(상품)



무 반입량 동향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무 평균 도매가격 16,62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7.9%, 54.0% 상승)
 - 가을 및 겨울무 생산량 감소하였고, 10월 출하되는 여름무 가격 높아 4분기 평균 가격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 2022년 가격: (10월) 25,810원/20kg, (11월) 12,100원, (12월) 11,930원

* 4분기 가격: (2022년) 16,620원/20kg, (2021년) 10,520원, (평년) 10,790원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산 겨울무 생산량 36만 7천 톤(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5%, 6.2% 감소)

* 재배면적 5,611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7%, 8.9% 감소)

* 단수 6,538kg/10a (전년 대비 1.9% 감소, 평년 대비 3.0% 증가)

* 1월 출하 무 태풍 피해 미미하며 생육기 기상여건 양호하여 작황 평년 대비 양호하였으나, 2월 출하 무 한파 등으로 인해 생육지연 및 작황 부진 가능성 존재

– 1분기 무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6%, 10.1% 감소

• 2023년 봄무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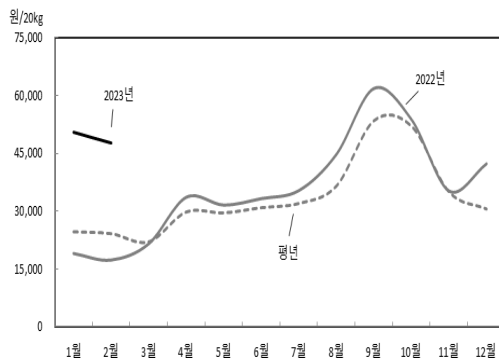
– 시설봄무 재배의향면적 135ha(전년 및 평년 대비 5.1%, 20.5% 감소)

– 노지봄무 재배의향면적 776ha(전년 및 평년 대비 1.4%, 4.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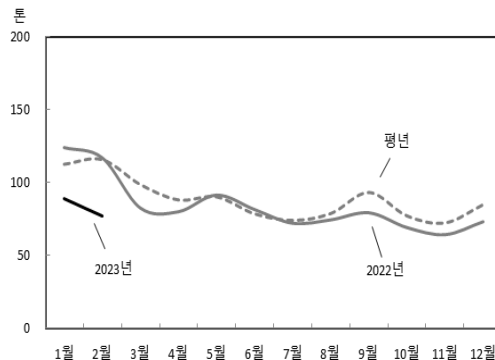
* 2022년산 겨울무 저장 의향 증가 예상하여 봄무 출하기 기대가격 낮아 재배의향 감소

2.3. 당근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당근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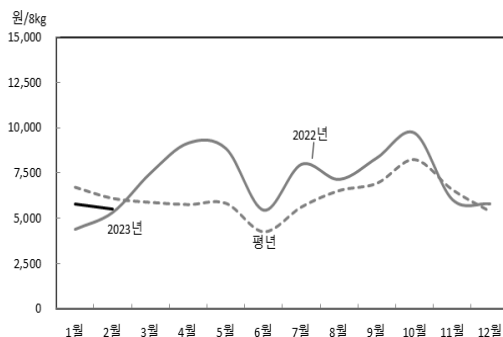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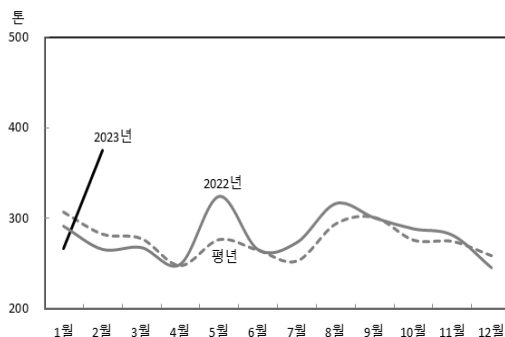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당근 평균 도매가격 43,820원/20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4.9%, 26.5% 상승)
 - 겨울당근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하여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2022년 가격: (10월) 53,830원/20kg, (11월) 35,270원, (12월) 42,350원
 - * 4분기 가격: (2022년) 43,820원/20kg, (2021년) 23,700원, (평년) 34,640원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산 겨울당근 생산량 3만 톤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9.8%, 38.0% 감소)
 - * 재배면적 815h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2.4%, 37.1% 감소)
 - * 단수 3,726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0.9%, 1.5% 감소)
 - 1분기 당근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0.5%, 39.4% 감소
 - 1분기 당근 도매가격 전년(19,310원/20kg) 및 평년(23,640원) 대비 상승
- 2023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
 - 봄당근 재배(의향)면적 927ha (전년 및 평년 대비 4.1%, 1.3% 감소)
 - 재배형태별로 시설은 전년 및 평년 대비 1.0% 감소한 776ha
 - 노지는 전년 및 평년 대비 5.2%, 2.4% 감소한 151ha
 - * 수익성 악화와 작목 전환(양파, 감자 등)으로 재배의향 전년 대비 감소

2.4. 양배추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배추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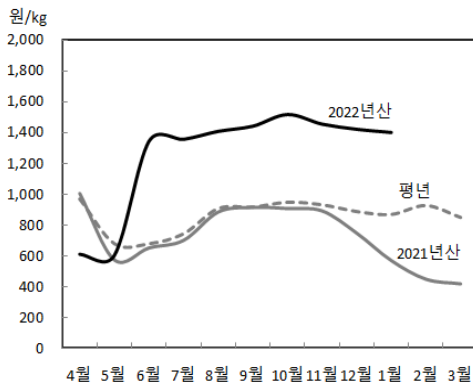
주: 평년 가격 및 반입량은 2018~2022년의 월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양배추 평균 도매가격 7,180원/8kg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1.8%, 6.9% 상승)
 - 충청지역 가을양배추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가격 상승
 - * 2022년 가격: (10월) 9,720원/8kg, (11월) 6,020원, (12월) 5,790원
 - * 4분기 가격: (2022년) 7,180원/8kg, (2021년) 4,440원, (평년) 6,720원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2022년산 겨울양배추 생산량 19만 2천 톤 (전년과 비슷, 평년 대비 25.3% 증가)
 - * 재배면적 3,259ha (전년 대비 2.7% 감소, 평년 대비 10.4% 증가)
 - * 단수 5,879kg/10a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6%, 13.4% 증가)
 - 1분기 양배추 출하량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2%, 20.6% 증가
- 2023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 1,618ha (전년 대비 4.6% 감소, 평년과 비슷)
 - 작형별로 시설은 전년 대비 4.5%, 노지는 4.7% 감소
 - * 겨울양배추 출하량 증가에 따른 출하기(4~5월) 가격 약세 우려로 재배(의향)면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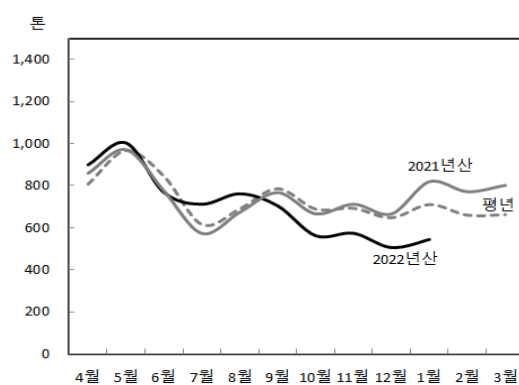
3. 양념채소⁴⁾

3.1. 양파

양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파 반입량 동향



주: 평년 자료는 2017년 4월~2022년 3월의 최대, 최소를 제외한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양파 평균 도매가격은 양파 생산량 및 재고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2.6%, 58.8% 높은 상품 kg당 1,464원
 - * 양파 도매가격: (금년) 1,461원/kg, (전년) 849원/kg, (평년) 922원/kg
 - * 월별 도매가격: (10월) 1,517원/kg, (11월) 1,455원/kg, (12월) 1,421원/kg
- 2022년산 양파 재고 동향
 - 2022년산 양파 입고량은 전년 대비 14.5% 적은 61만 5천 톤 내외 추정
 - *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 1만 8천여 톤 포함
 - 12월 말 기준 출고량은 전년 대비 10.8% 감소한 40만 5천 톤 내외 추정
 - 부패율을 감안한 12월 말 기준 재고량은 21만 8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 감소 추정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노호영 전문위원(rhy81@krei.re.kr), 박한울(phu87@krei.re.kr), 노수정(nosu303@krei.re.kr), 김다정(swetmug@krei.re.kr), 김치운(kcu522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2022년산 양파 추정 재고량(12월말 기준)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2	614,554	361,582	217,616
2021	718,793	405,345	268,663
평년	685,470	388,233	255,290
전년 대비	-14.5	-10.8	-19.0
평년 대비	-10.3	-6.9	-14.8

주 1. 2022년산은 정부 비축물량이 포함된 수치임.
 2.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2년 14.0%, 2021년산 14.3%, 평년 14.1%)을 적용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2년 12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1,401원으로 전년(569원) 대비 크게 상승
 - 2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산 저장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보다 높으나, 조생종양파 조기 출하 영향으로 전월보다 낮을 전망
- 2023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 2023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17,501ha 추정
 - * 품종별로 조생종이 전년 대비 1.6% 감소, 중만생종은 0.2% 증가

2023년산 양파 추정 재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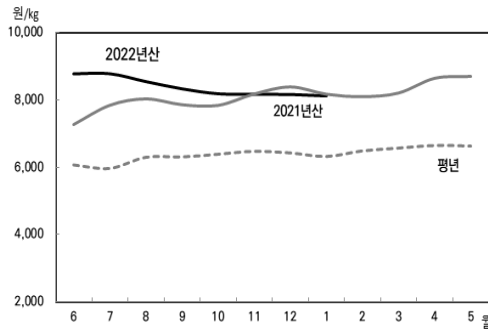
단위: ha, %

연산	조생종	중만생종	전체
2023	2,926	14,575	17,501
2022	2,975	14,546	17,521
평년	2,923	16,588	19,511
전년 대비	-1.6	0.2	-0.1
평년 대비	0.1	-12.1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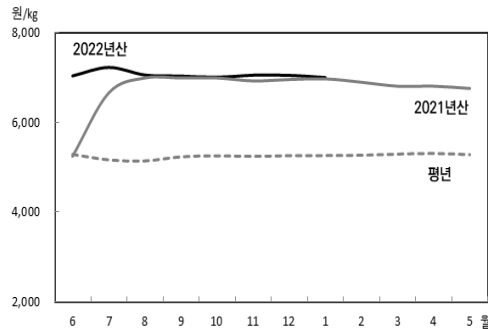
주: 2022~2023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3.2. 마늘

간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난지형 마늘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평년 가격은 2017년 6월~2022년 5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간마늘 평균 도매가격은 2022년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0.6%, 29.4% 상승

* 간마늘 도매가격: (금년) 8,185원/kg, (전년) 8,135원/kg, (평년) 6,327원/kg

* 월별 도매가격: (10월) 8,198원/kg, (11월) 8,183원/kg, (12월) 8,175원/kg

- 국내 비축물량 방출 등 정부 수급대책 시행과 민간 수입량 증가로 월별 도매가격은 소폭 하락 추세

- 2022년산 마늘 재고 동향

-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5.8% 적은 9만 1천 톤 내외 추정

- 12월 말 기준, 감모율을 감안한 난지형 마늘 재고량은 평년 대비 16.0% 감소한 4만 7천 톤 내외 추정, 전년보다는 4.4% 증가

* 정부대책물량 방출, 냉동마늘 중심의 민간 수입량 증가 등으로 출고가 원활하지 못해 누적 출고량 전년 동기 대비 감소

2022년산 난지형 마늘 재고량

단위: 톤, %

연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2022	90,781	39,070	47,280
2021	96,419	45,630	45,305
평년	107,000	45,135	56,305
전년 대비	-5.8	-14.4	4.4
평년 대비	-15.2	-13.4	-16.0

주 1. 재고량은 (입고량-출고량)에 감모율(2022년산 8.6%, 2021년산 10.8%, 평년 9.0%)을 적용한 국내산 기준이며, 국내산 정부 비축물량이 포함된 수치
 2. 평년 입고량은 냉장협회 월별 마늘 소요량 기준
 자료: 농업관측센터, 2022년 12월 20일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 결과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2023년 1월 깐마늘 가격은 8,135원/kg으로 평년(6,318원) 대비 높으나, 전년 및 전월과 비슷
 - 2023년 1분기 마늘 도매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평년 대비 높으나, 전년 및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전망
- 2023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 2023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4,280ha 추정
 - * 품종별로 한지형이 전년과 비슷, 난지형은 3.1% 증가
(난지형 중 대서종 6.3% 증가, 남도종 1.8% 감소)

2023년산 마늘 추정 재배면적

단위: ha, %

연산	한지형	난지형	전체
2023	4,635	19,645	24,280
2022	4,628	19,058	23,686
평년	5,013	20,612	25,625
전년 대비	0.2	3.1	2.5
평년 대비	-7.5	-4.7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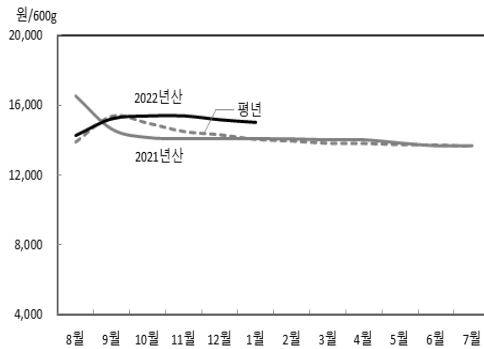
주 1. 2022년산은 농업관측센터 실측치
 2. 평년은 2018년산~2022년산 재배면적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022년 11월 2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 결과

3.3.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양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1. 평년 가격은 2016년 8월~2021년 7월의 최대, 최소를 뺀 연산 기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5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이며, 8월 가격은 햇건고추 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상품 600g) 2022년산 재고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5%, 7% 상승

- 김장철(11월) 정부 수급 안정 대책 시행으로 비축물량 방출되어 월별 가격 하락

* 건고추 도매가격(원/600g): (금년) 12,941 (전년) 11,279 (평년) 12,138

* 월별 도매가격(원/600g): (10월) 13,346 (11월) 12,925 (12월) 12,552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건고추 화건 도매가격(상품 600g) 전년 12월과 비슷한 12,5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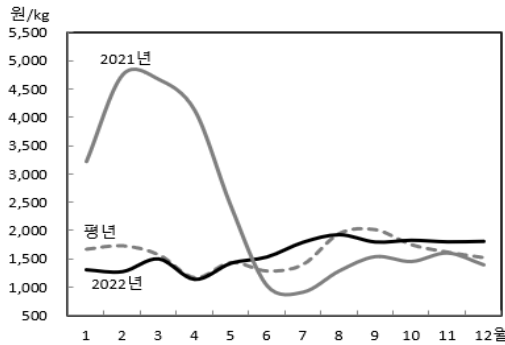
- 1분기 건고추 가격은 1월과 비슷하며, 전년 대비 높은 수준 유지 전망

- 2023년산 건고추 재배의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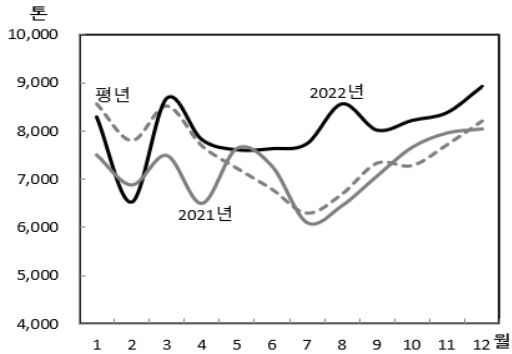
- 2022년 12월 말 조사 결과, 건고추 재배의향면적은 전년산 작황 부진, 인건비 상승 등 영향으로 2022년산 및 평년 대비 각각 4%, 7% 감소한 28,788ha 조사

3.4. 대파

대파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파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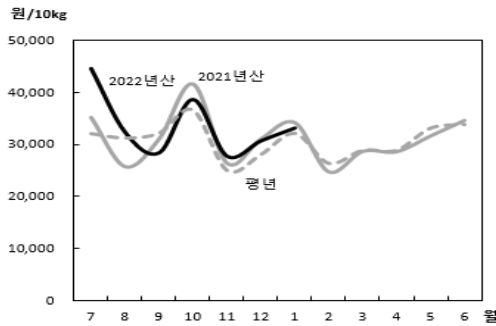
주: 평년 자료는 2017년 1월~2021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 대파 4분기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경기, 강원 및 전남지역 출하량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2.7%, 26.0% 상승
 - * 대파 도매가격: (금년) 1,821원/kg, (전년) 1,484원/kg, (평년) 1,629원/kg
 - * 월별 도매가격: (10월) 1,837원/kg, (11월) 1,809원/kg, (12월) 1,818원/kg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대파 상품 kg당 도매가격은 폭설 영향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 (1,316원)보다 높은 1,607원
 - 2022년산 전남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정식기 가격이 낮아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2%, 5.3% 감소
 - 작황은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2022년산 겨울대파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
 - 2022년 하반기 농가의 높은 수취가격 기대영향으로 포전거래가 원활하지 못하여 출하의향은 전년보다 느린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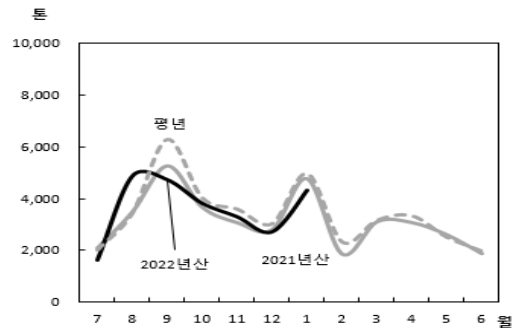
4. 과일5)

4.1. 사과

사과 도매가격 동향(상품)



사과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021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7~8월 쓰가루, 9월 홍로, 10월 양광, 11월 이후 후지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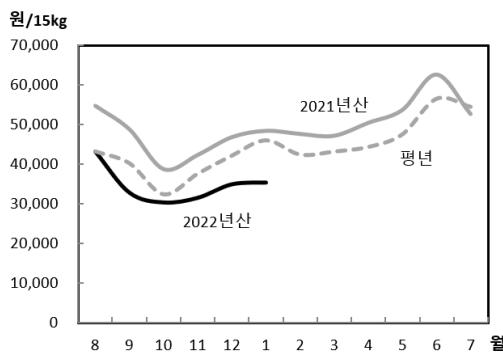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 10월 양광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7% 하락한 38,600원/10kg이었음.
 - 11~12월 후지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품질이 좋아 전년 대비 2% 상승한 29,200원/10kg이었음.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후지 도매가격은 설 성수기 출하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3% 낮은 33,100원/10kg이었음.
 -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1.7.~1.20.) 후지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증가하여 전년 성수기 대비 20% 하락한 23,100원/5kg이었음.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최기림(somang89@krei.re.kr), 이혜인(hyen@krei.re.kr), 김자훈(jhkim4209@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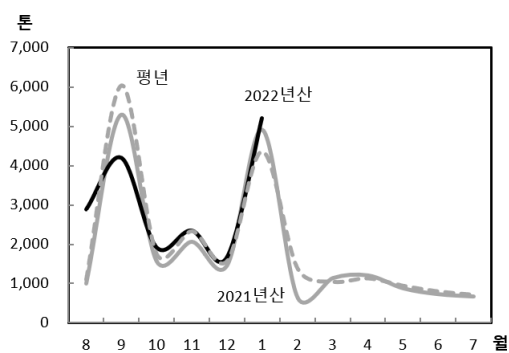
- 2월 이후 사과 출하량은 후지 저장량이 많아 전년 대비 증가하겠으며, 이에 따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재배면적 전망
 - 2023년 사과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유목면적은 성목화로 전년 대비 3% 감소하고, 성목면적은 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 후지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겠으나, 홍로는 전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감홍과 기타품종은 전년 대비 각각 7%, 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기타품종 중에서는 아리수와 시나노골드를 중심으로 식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4.2. 배

배 도매가격 동향(상품)



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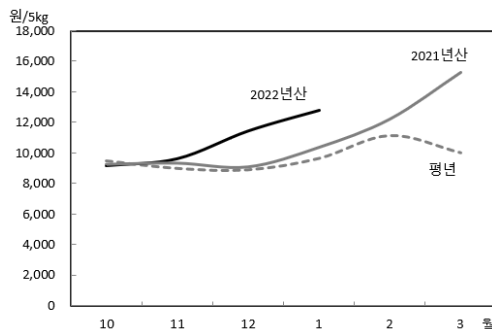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7~2021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8월 원황, 9월 이후 신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 2022년 4분기 동향
 - 10~12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25% 하락한 32,200원/15kg이었음. 이는 생산량 증가로 저장량이 늘어 반입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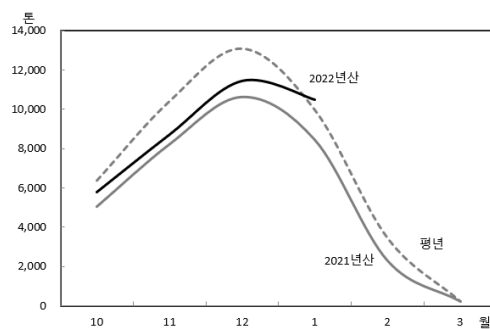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늘어 전년 대비 27% 하락한 35,400원/15kg이었음.
 - 설 성수기(설 전 2주간, 1.7.~1.20.) 신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 대비 14% 하락한 27,500원/7.5kg이었음.
 - 2월 이후 배 출하량은 저장량이 많아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재배면적 전망
 - 2023년 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9,489ha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국내 육성품종 보급 사업과 신규 식재가 늘어 전년 대비 1% 증가하지만, 성목면적은 농가 고령화, 인력 부족, 경영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품종별로는 신고와 원황이 전년 대비 각각 3%, 2% 감소하는 반면, 신화·화산·황금·기타 품종(창조, 그린시스, 슈퍼골드 등)은 전년 대비 각각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3. 감귤

감귤 도매가격 동향(상품)



감귤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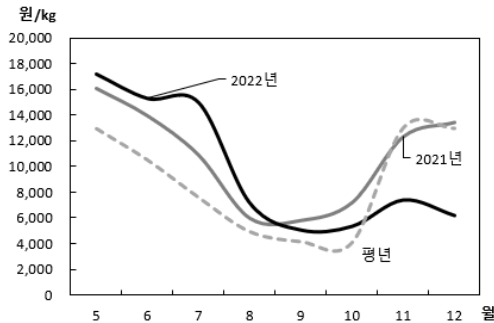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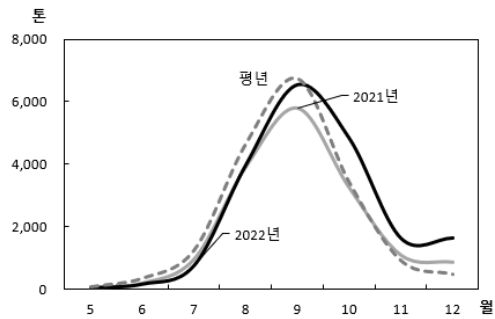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 10~12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수확기 기상 양호로 품질이 좋아 전년 대비 9% 상승한 10,100원/5kg이었음.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노지온주 도매가격은 당산비 등 품질 양호로 전년 대비 23% 상승한 12,800원/5kg이었음.
 - 2월 이후 가격은 생산량 감소로 반입량이 줄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재배면적 전망
 - 2023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2만 1,942ha로 전망됨. 품종별로 노지온주와 월동온주는 폐원(농가 고령화 등), 품종 갱신, 작형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2%, 1% 감소하나, 하우스온주는 귀농인의 신규 식재가 늘어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만감류 재배면적은 작형 전환 및 품종 갱신이 늘어 전년 대비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품종별로 한라봉 재배면적은 고목화로 인한 생산성 및 품질 저하와 타 품종 갱신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선호가 높은 천혜향·레드향은 신규 식재가 늘어 전년 대비 각각 3%, 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4.4. 포도

포도 도매가격 동향(상품)



포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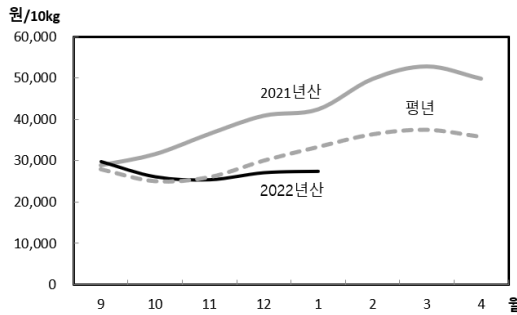
2. 도매가격은 5월 델라웨어(2kg), 6~7월 거봉(2kg), 8~10월 캠벨얼리(3kg, 2017~18년은 5kg), 11~12월 샤인머스켓(2kg)을 원/kg으로 환산함.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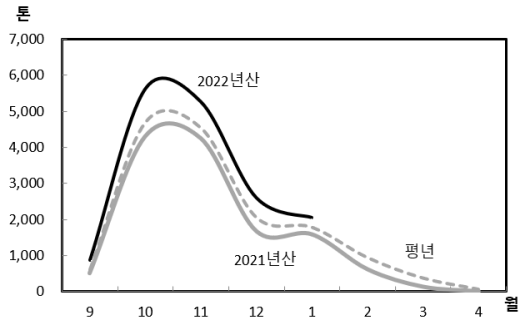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 10~11월 캠벨얼리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품질 저하 및 샤인머스켓 가격 약세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2% 하락한 15,600원/3kg이었음.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줄었으나, 품질 저하로 대형유통업체 발주량이 감소하여 도매시장 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
 - 10~12월 샤인머스켓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생산량 증가로 반입량이 늘어 전년 대비 46% 하락한 13,100원/2kg이었음.
- 2023년 재배면적 전망
 - 2023년 포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1만 4,796ha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샤인머스켓 유목의 성목화로 전년 대비 3% 감소하겠으나, 성목면적은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캠벨얼리와 거봉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각각 6%, 2% 감소하여 재배면적 감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며, 기타품종은 적포도 품종(루비로망 · 홍주씨들리스 · 블랙사파이어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5. 단감

단감 도매가격 동향(상품)



단감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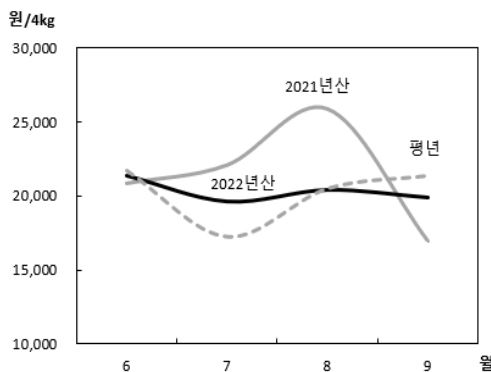
주 1. 평년은 2017~2021년산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2. 도매가격은 9월 서촌, 10~4월 부유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 2022년 4분기 동향
 - 10~12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전년 대비 28% 하락한 26,200원/10kg이었음. 이는 생산량이 늘어 반입량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은 반입량이 늘어 전년 대비 35% 하락한 27,500원/10kg이었음.
 - 설 성수기(설 전 1주간, 1.14.~1.20.) 부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성수기 대비 36% 하락한 29,500원/10kg이었음.
 - 2월 이후 단감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재배면적 전망
 - 2023년 단감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9,313ha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태추 및 신품종 신규 식재가 늘어 전년 대비 5% 증가하지만, 성목면적은 농가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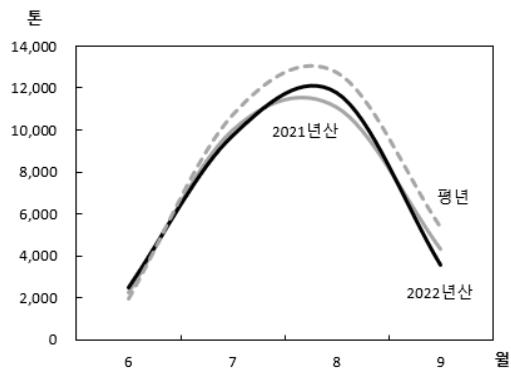
- 품종별로 부유와 서춘조생은 전년 대비 각각 2%, 3% 감소하는 반면, 태추와 기타 품종(원추, 올누리 등)은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6. 복숭아

복숭아 도매가격 동향(상품)



복숭아 반입량 동향



주 1.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2. 도매가격은 6월 천도(5kg), 7월 백도, 8월 천중도, 9월 엘버트 기준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가락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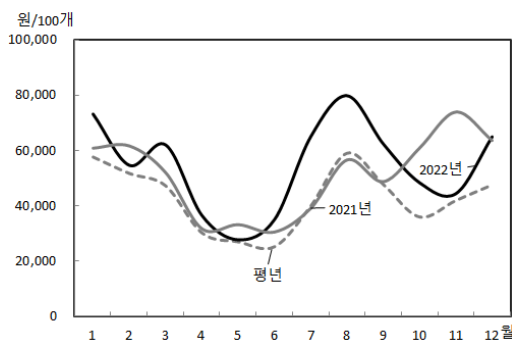
• 2023년 재배면적 전망

- 2023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2만 219ha로 전망됨. 유목면적은 품종 갱신 및 신규 식재가 늘어 전년 대비 1% 증가하고, 성목면적은 폐원(농가 고령화, 고목화 등) 증가, 품목 전환(샤인머스켓 등), 품종 갱신 등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품종별로 유모계 재배면적은 고목화에 따른 폐원이 많아 전년 대비 1% 감소하나, 천도계 재배면적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신비·옐로드림 등 신품종 식재가 늘어 전년 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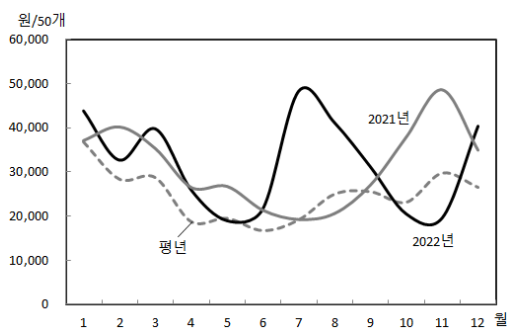
5. 과채6)

5.1. 오이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취청오이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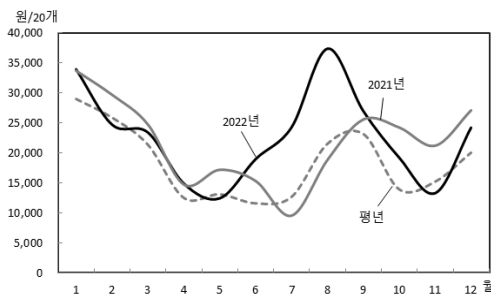
- 백다다기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48,300원/100개, 11월 44,400원, 12월에는 64,900원이었음. 4분기 평균가격은 52,600원/1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하였음.
- 4분기 백다다기오이 반입량은 10~11월 기상 여건이 좋아, 작황이 좋지 않았던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하였음.
- 취청오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20,400원/50개, 11월 19,500원, 12월은 40,400원이었음. 4분기 평균가격은 26,800원/50개로 전년 동기보다 34% 하락하였음.
- 4분기 취청오이 반입량은 주 출하지인 호남지역의 초기 생육이 좋아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음.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김원태 전문위원(wtkim@krei.re.kr), 신성철(ssc0729@krei.re.kr), 김명은(mekim@krei.re.kr), 김환희(whee0201@krei.re.kr), 문지혜(mjh91@krei.re.kr), 김주영(kimjyyang30@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백다다기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한파에 따른 기온 하락과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동월 대비 15% 높은 83,800원/100개이었음.
 - 2~3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영·호남지역에서 기상 여건에 따른 생리 장애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1월 취청오이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동월보다 16% 높은 50,900원/50개이었음.
 - 2~3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주 출하지인 호남지역의 면적 감소와 기상 여건 부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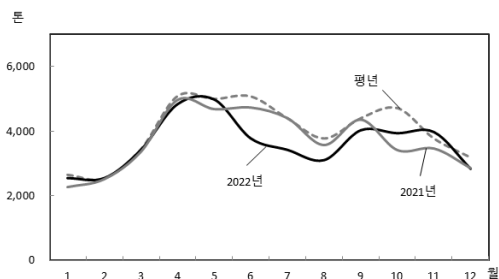
5.2. 애호박

애호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애호박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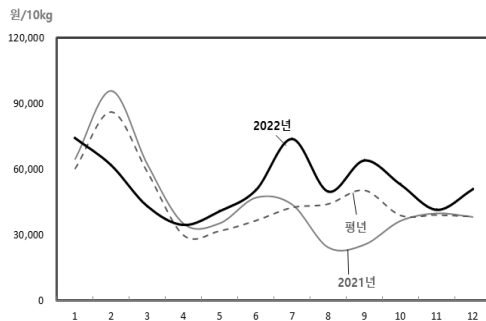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19,200원/20개, 11월 13,300원, 12월에는 24,200원이었음. 4분기 평균가격은 18,900원으로 전년(24,200원) 동기 대비 22%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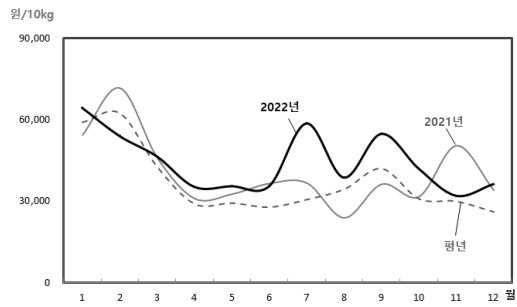
- 4분기 애호박 반입량은 충청지역에서 작황이 양호하였으며, 영남지역의 이른 정식으로 출하가 앞당겨져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음.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애호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주산지인 영·호남지역의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되어 전년(33,900원) 대비 2% 높은 34,600원/20개이었음.
 - 2~3월 애호박 출하량은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착과 불량과 바이러스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3. 풋고추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오이맛고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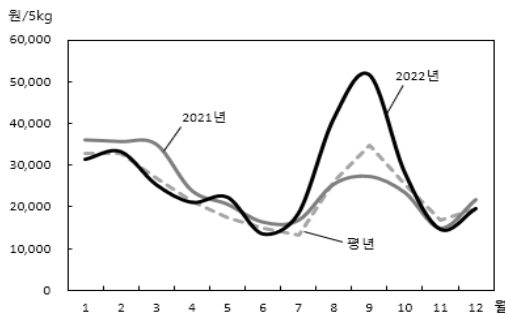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 청양계풋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53,000원/10kg, 11월 41,500원, 12월 50,900원이며, 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과 평년 동기 대비 27%, 21% 높은 48,500원이었음.
 - 오이맛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42,000원/10kg, 11월 32,000원, 12월 36,000원이며, 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 낮으나 평년 대비 24% 높은 36,800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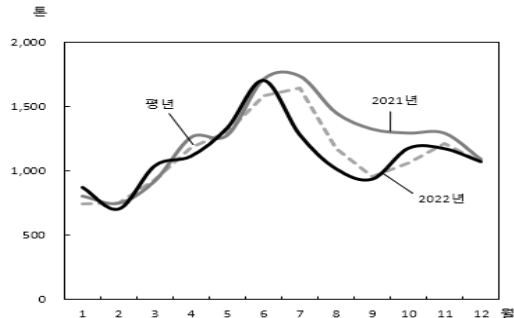
- 청양계꽃고추 가격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오이맛고추는 전년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재배면적 증가로 출하량이 늘어 전년 대비 하락하였음.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청양계꽃고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전년 대비 13% 높은 83,900원/10kg, 오이맛고추는 6% 높은 68,600원/10kg임.
 - 청양계 및 오이맛고추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것은 주산지의 기상 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출하가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2~3월 청양계 및 오이맛고추 출하량은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5.4. 빨강파프리카

빨강파프리카 도매가격 동향(상품)



빨강파프리카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 빨강 파프리카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10월 28,200원/5kg, 11월 16,900원, 12월 19,500원이었음. 4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4% 높은

21,000원/5kg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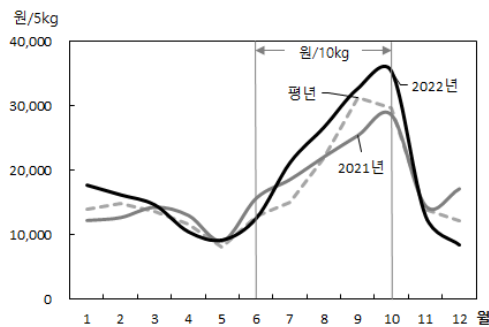
- 4분기 빨강 파프리카 반입량은 강원지역에서 병·바이러스 피해가 증가하였고, 남부지역에서 2그룹 착과가 원활하지 않아 전년 동기보다 7% 감소하였음.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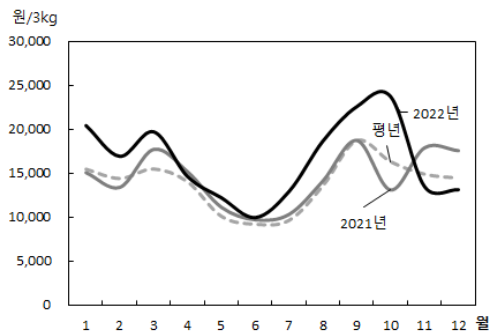
- 1월 빨강 파프리카 도매가격(가락시장/상품)은 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13% 높은 35,500원/5kg이었음.
- 빨강 파프리카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것은 이른 설 연휴로 수요가 증가하였고,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착과수가 줄었기 때문임.
- 2월 빨강 파프리카 출하량은 1월 하순 한파 및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 3월 빨강 파프리카 출하량은 영남지역에서 기존 농가의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5.5. 토마토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 동향(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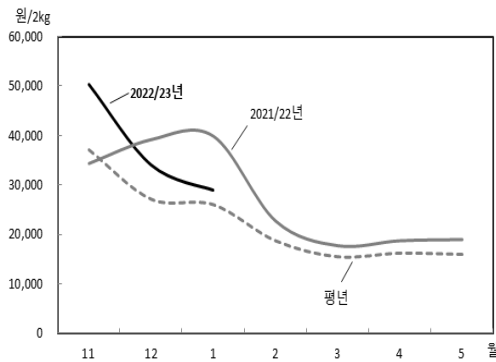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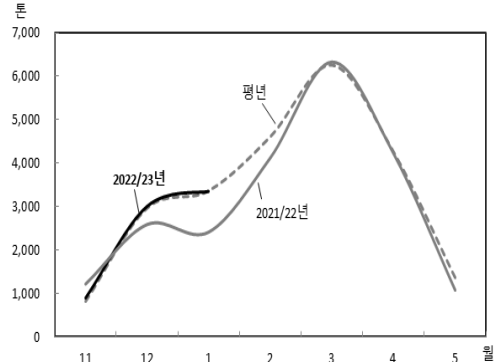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35,300원/10kg, 11월 12,900원/ 5kg, 12월 8,400원/5kg이었음. 10월 가격은 전년 동기(28,500원/10kg) 대비 24% 높았으나, 10~11월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15,900원/5kg) 대비 33% 하락한 10,700원이었음.
 - 10월 가격은 여름철 기상 악화(잦은 비, 일조량 감소 등)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높았던 반면, 11~12월 가격은 가을 작기 작황 양호로 전년 대비 출하량이 늘어 전년 대비 낮게 형성되었음.
 -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23,700원/3kg, 11월 13,400원, 12월 13,100원이었음. 4분기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16,200원) 대비 3% 높은 16,700원이었음.
 - 이는 여름철 작황 부진과 생육기 기온 하락으로 출하량이 감소하여 10월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임.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일반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17,700원) 대비 38% 하락한 10,900원/5kg이었음.
 - 2~3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늘고, 생육도 양호하여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1월 대추형방울토마토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바이러스 피해가 많았던 전년보다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20,400원) 대비 37% 하락한 12,900원/3kg이었음.
 - 2~3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전년 대비 생육 양호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5.6. 딸기

딸기 도매가격 동향(상품)



딸기 반입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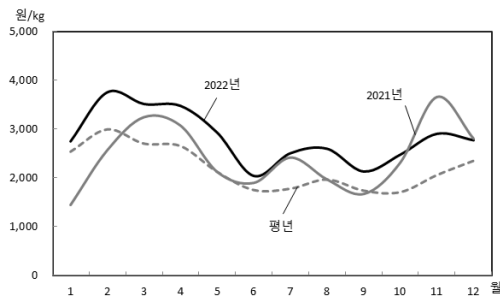


주: 평년은 과거 5개년의 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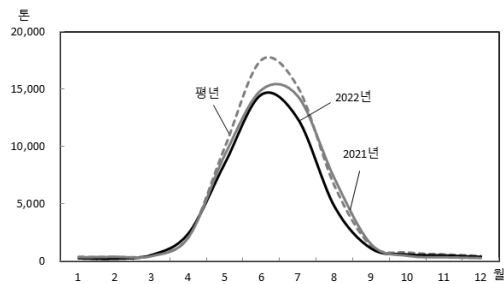
- 2022년 4분기 동향
 - 4분기 딸기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수확 초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전년 및 평년 대비 31%, 35% 상승한 51,000원/2kg이었음.
 - * 4분기 월별 가격(원/2kg, 상품): 10월(68,600), 11월(50,300), 12월(34,100)
 - 4분기 딸기 평균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은 출하 초기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12월부터 생육 호조로 출하량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음.
 - * 4분기 딸기 반입량: 2022년(3,911톤), 2021년(3,799톤)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딸기 도매가격은 작황 호조로 인한 반입량 증가로 전년(39,800원) 대비 27% 하락한 29,000원/2kg이었음.
 - 1월 딸기 반입량은 전년(2,411톤) 대비 많은 3,343톤으로 주산지인 경남지역과 논산지역을 중심으로 작황이 양호한 상황임.
 - 2~3월 딸기 출하량은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딸기 생육이 좋아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5.7. 수박

수박 도매가격 동향(상품)



수박 반입량 동향



주: 평년은 2017~2021년의 월별자료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2022년 4분기 동향
 -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10월 2,480원/kg, 11월 2,900원, 12월 2,780원이었음. 4분기 평균가격은 전년(2,930원) 대비 7% 하락한 2,720원이었음.
 - 수박 4분기 반입량은 병·바이러스 감소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였음.
- 2023년 1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수박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은 재배면적 감소와 해충(총채벌레, 응애 등) 피해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2,750원) 대비 38% 상승한 3,790원/kg이었음.
 - 2~3월 수박 출하량은 영남지역에서 인력 부족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6. 축산⁷⁾

6.1. 한육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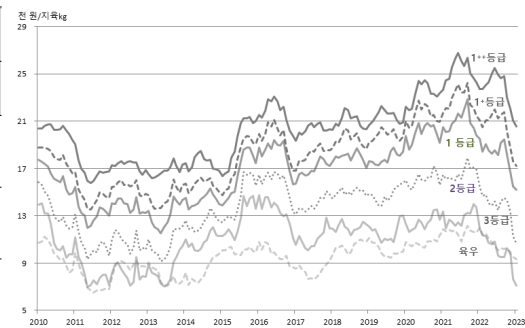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 마릿수 추이

단위: 천 마리, 천 가구

구분	21년		22년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p
사육 농장수	94	94	93	93	92	91
총 마릿수	3,623	3,589	3,558	3,734	3,752	3,694
가임 암소	1,634	1,640	1,620	1,648	1,691	1,700

주: 2022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2년 4/4분기 동향
 - 12월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9월(375만 2천 마리)보다 1.6% 감소한 369만 4천 마리(전년 동월 358만 9천 마리보다 2.9% 증가)
 - * 12월 한우 사육 마릿수 352만 8천 마리, 육우 16만 6천 마리
 - * 한우 가임암소 마릿수 169만 3천 마리(전년 동월 163만 1천 마리보다 3.8% 증가)
 - 4분기 한우 도매가격(전체 평균)은 전분기 19,592원/지육kg보다 10.9% 하락한 17,452원(전년 동기 20,988원보다 16.8%, 평년 동기 18,682원보다 6.6% 하락)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형우(lhw0906@krei.re.kr), 강지석(jskang@krei.re.kr) 전문연구원, 지선우(bsn02@krei.re.kr), 김충현(goldbl@krei.re.kr), 김태환(kimth3368@krei.re.kr), 정진주(pearlj@krei.re.kr), 김지수(jisusu@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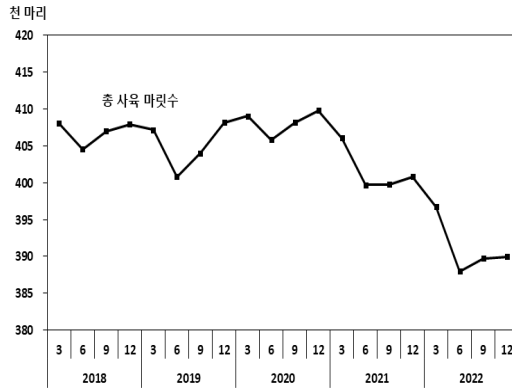
- 2023년 1/4분기 전망
 - 1분기 한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338만 5천 마리)보다 3.1% 증가한 349만 마리
 - 1분기 한우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하락한 15,000~16,000원

한우 사육 마릿수 및 도매가격 전망

구분	2022년(A)	2022년	2023년(B)	B/A
사육 마릿수	3월	12월	3월	3.1%
	338만 5천 마리	352만 8천 마리	349만 마리	
평균 도매가격 (지육kg)	1분기	4분기	1분기	-19~-24%
	19,754원	17,452원	15,000~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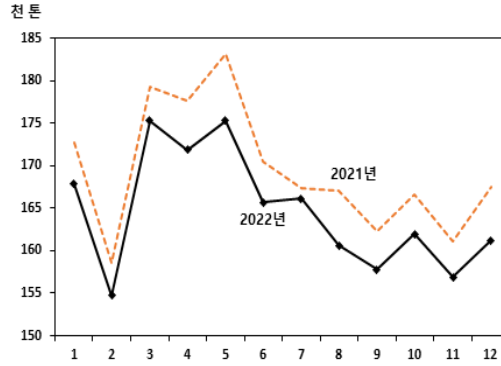
6.2. 젖소

사육 동향



자료: 통계청, 「가축동향」.

원유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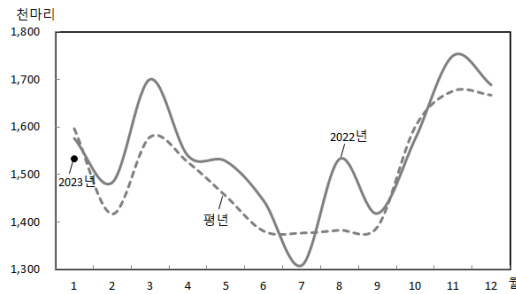


자료: 낙농진흥회

- 2022년 4/4분기 동향
 - 12월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7% 감소한 39만 마리
 - 10~12월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48만 톤
- 2023년 1/4분기 전망
 - 1분기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38만 3천~38만 6천 마리 전망
 - 1분기 원유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한 48만 4천~48만 9천 톤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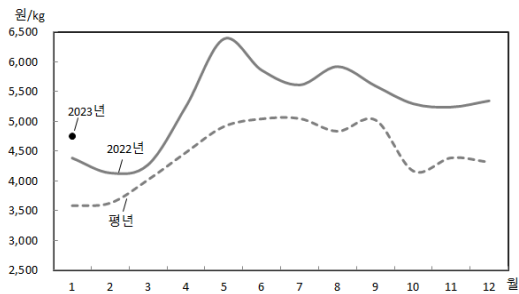
6.3. 돼지

도축 마릿수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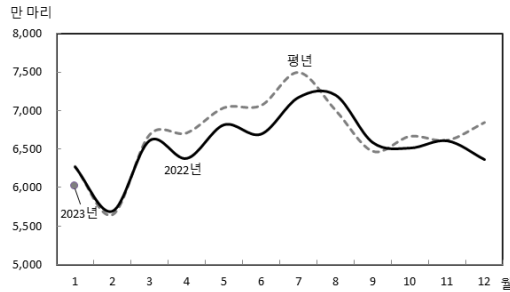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월별 자료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2년 4/4분기 동향
 - 2022년 11월 말 기준 모든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보다 1.0% 감소한 96만 7천 마리, 모돈·자돈·육성돈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0.1% 감소한 1,187만 마리(이력제)
 - 4분기 도축 마릿수는 자돈·육성돈·비육돈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 동기(498만 마리)보다 0.8% 증가한 501만 마리
 - 4분기 돼지 도매가격은 수요 증가로 전년 동기(5,003원/kg)보다 상승한 5,294원/kg
- 2023년 1/4분기 전망
 - 1분기 도축 마릿수는 작업일수 증가로 전년보다 0.6% 증가한 479만 마리 전망
 - 1분기 도매가격은 수입량 감소, 육가공품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상승 전망 (1월 4,756원/kg, 2~3월 4,500~4,700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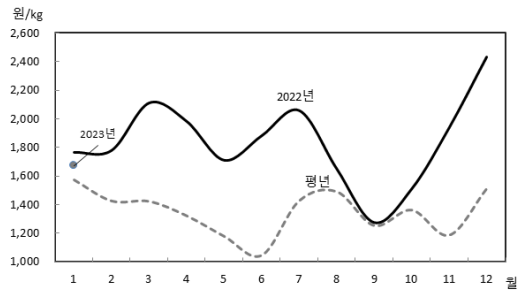
6.4. 육계

도계 마릿수 추이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육계 산지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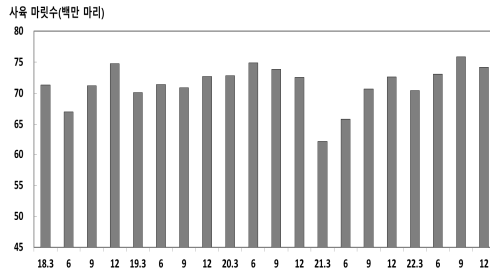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생계유통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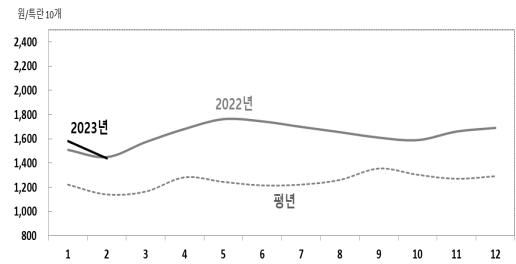
- 2022년 4/4분기 동향
 - 4분기 육용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는 생산성 저하로 노계 도태 마릿수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7.8% 감소한 423만 마리
 - 4분기 육계 도축 마릿수는 생산원가 상승 및 종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동기 대비 7.4% 감소한 1억 9천 5백만 마리
 - 4분기 평균 육계 산지 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31.7% 상승한 1,961원/kg
- 2023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분기 병아리 생산량은 종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 전망
 - 1분기 육계 도축 마릿수는 병아리 생산 감소로 전년보다 5.4% 내외 감소한 1억 7천 6백만 마리 전망
 - 1월 생계유통가격은 설성수기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5.5% 하락한 1,669원/kg, 2~3월 육계 산지 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상승한 1,800~2,000원/kg 전망

6.5. 산란계

산란계 사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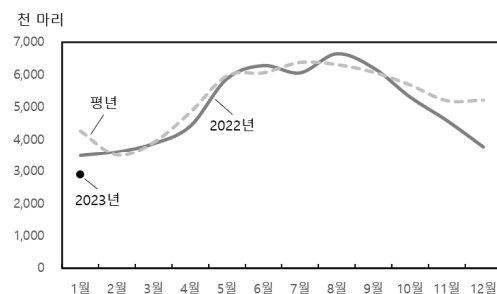
계란 산지가격 동향



- 2022년 4/4분기 동향
 - 12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419만 마리로 전년(7,261만) 및 평년(7,267만) 대비 각각 2.2%, 2.1% 증가했으며,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했으나 평년 대비 0.4% 감소한 5,412만 마리
 - 3개월 미만은 전년 대비 7.3% 감소하였으나 평년 대비 0.4% 증가했으며, 3~6개월령 미만은 전년 및 평년 대비 6.2%, 12.0% 증가
 - 4분기 실용계 입식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1.7%, 12.4% 감소한 1,103만 마리, 4분기 산란 성계 도태 마릿수는 전년 및 평년 대비 1.9%, 0.7% 감소한 793만 마리
 - 4분기 계란 평균 산지가격은 전년(1,527원) 및 평년(1,290원) 대비 7.9%, 27.7% 상승한 1,647원(특란 10개,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3년 1/4분기 동향 및 전망
 - 1월 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HPAI 살처분으로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4.6% 상승한 1,579원
 - 2~3월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2022년 하반기 실용계 입식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6개월령 이상 사육 마릿수 증가로 2~3월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한 1,400~1,500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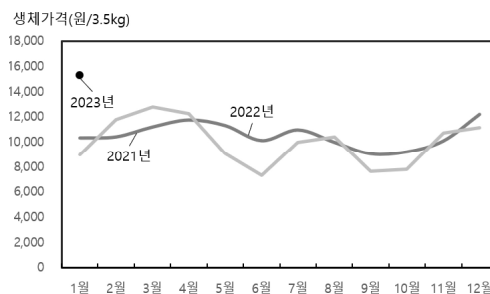
6.6. 오리

오리 도축 마릿수 동향



주: 평년은 2018~2022년의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오리 산지가격 동향



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오리 산지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평년 자료는 없음.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2년 4/4분기 동향
 - 12월 오리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599만 4천 마리, 육용오리와 종오리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3%, 0.7% 감소한 536만 3천 마리, 63만 1천 마리
 - 4분기 오리 도축 마릿수는 HPAI 발생에 따른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1,367만 2천 마리, 4분기 평균 오리 산지가격(생체 3.5kg)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2% 상승한 10,494원
- 2023년 1/4분기 전망
 - 1분기 오리고기 생산량은 HPAI 피해로 전년 대비 감소 전망
 - 2~3월 오리 산지가격은 오리고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13,000 원/3.5kg 내외 전망

Ⅳ.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 실태¹⁾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 조사 개요

-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인구 여건 변화와 식습관 변화 등으로 도시가구의 농식품 소비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음식점에서의 농축산물 구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음식점의 농축산물 소비실태를 파악함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분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전체		330	100.0
업소유형	한식	149	45.2
	일식	36	10.9
	양식	42	12.7
	중식	43	13.0
	분식	60	18.2
면적	1~100㎡ 이하	236	71.5
	101~300㎡ 이하	64	19.4
	300㎡ 초과	30	9.1
직원수	1~3명 이하	266	80.6
	4~5명 이하	35	10.6
	6명 이상	29	8.8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배현정(bhj923@krei.re.kr) 연구원이 「음식점 농축산물 소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 조사대상 업체는 서울지역의 규모별·업종별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체 330개 패널을 구성함.
 - 유형별로 한식이 45.2%로 가장 많고, 분식 18.2%, 중식 13.0%, 양식 12.7% 등의 순임. 규모별 응답자는 100m² 이하인 업소가 71.5%로 가장 많고, 101~300m² 이하 19.4%, 300m² 초과 9.1% 순으로 나타남.
 - 사업유형별 응답자는 대부분 단독개인점포이며, 직원 수는 3명 이하가 80.6%로 가장 많음.

2. 품목별 농축산물 소비실태

2.1. 경기 현황 조사

- 2022년 4/4분기 음식점 경기 동향은 2.98(5점 척도)로 전년 동기(2.21) 및 전 분기(2.91) 대비 상승함.

음식업 경기 동향(5점 척도 기준)

2021년 4/4분기	2022년 3/4분기	2022년 4/4분기
2.21	2.91	2.98

주: 음식점 경기동향은 5점 척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경기 상황이 매우 좋으며, 1에 가까울수록 좋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4/4분기(10~12월) 매출은 전 분기와 비교하였을 때 매출 증감률이 5% 정도인 3.05로 조사됨.

음식업 매출 동향(5점 척도 기준)

전년 동기 (21년 4/4분기)	전분기 (22년 3/4분기)
2.14	3.03

- 2023년 1/4분기 음식점 예상 매출은 2022년 4/4분기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할 때 평균 100.56으로 나타나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2.2. 곡류

- 2022년 4/4분기 쌀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와 전 분기 대비 각각 2.4%, 2.3% 증가함.
 - 4/4분기 감자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및 전 분기 대비 각각 3.2%, 2.9% 증가함.

곡류 품목별 4/4분기 월평균 구매량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 분기 대비
2.4	2.3	3.2	2.9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3년 1/4분기 쌀의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2년 1/4분기) 대비 5.5%, 감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곡류 품목별 1/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쌀	감자
5.5	11.3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3. 채소류

- 2022년 4/4분기 엽근채소류, 양념채소류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엽근채소류 중 무, 양배추, 당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1.3%, 1.0% 증가한 반면, 배추김치와 배추는 각각 10.9%, 1.9% 하락함.

- 양념채소의 월평균 구매량은 양파와 건고추의 경우 각 4.1%, 3.6% 감소했고, 마늘, 대파, 고춧가루는 전년 동기 대비 2.9%, 2.5%, 2.1% 증가함.

채소류 품목별 4/4분기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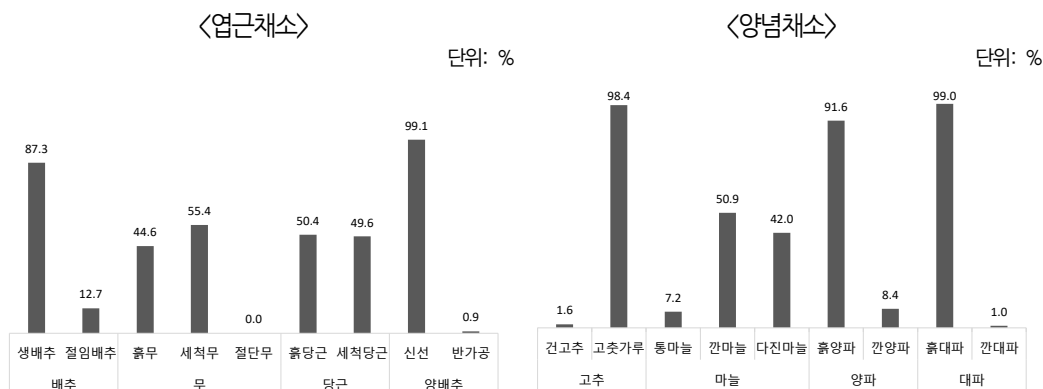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1.9	건고추	-3.6
배추김치	-10.9	고춧가루	2.1
무	3.7	마늘	2.9
당근	1.0	양파	-4.1
양배추	1.3	대파	2.5
소계	-3.1	소계	-1.8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업체에서 원물 형태로의 구입을 선호하는 품목은 양배추(99.1%), 대파(99.0%), 양파(91.6%), 배추(87.3%) 순이며, 무, 고추, 마늘의 경우 원물 형태보다 세척하거나 분쇄 과정을 거친 1차 가공 형태의 구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채소류 품목별 구입 형태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 결과

- 2022년 4/4분기 채소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73.5%), 깐양파(51.5%), 고춧가루(49.8%), 다진마늘(4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대파, 무, 배추는 전체 구매의 99.0% 이상이 국내산으로 다른 채소류에 비해 국내산 구매율이 월등히 높았음.
- 중국산 채소류를 사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75.8%)’를 가장 많이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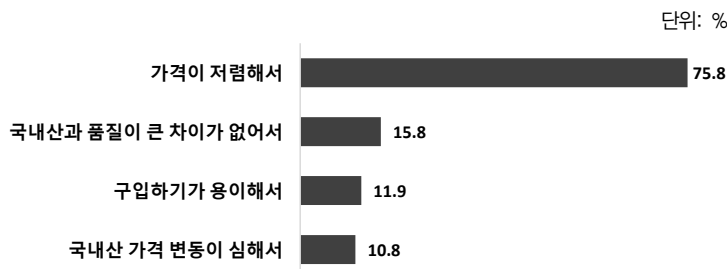
채소류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21년 4/4분기		2022년 4/4분기	
		국내산	중국산	국내산	중국산
엽근채소	무	99.3	0.7	99.5	0.5
	배추	99.0	1.0	99.4	0.6
	배추김치	26.6	73.4	26.5	73.5
	당근	61.3	38.7	62.2	37.8
	양배추	90.4	9.6	90.3	9.7
양념채소	건고추	59.1	40.9	66.7	33.3
	고춧가루	51.4	48.6	50.2	49.8
	통마늘	79.7	20.3	83.3	16.8
	깐마늘	57.3	42.7	60.7	39.3
	다진마늘	57.8	42.2	58.1	41.9
	훈양파	90.4	9.6	91.0	9.0
	깐양파	42.2	57.8	48.5	51.5
	대파	99.8	0.2	99.7	0.3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채소류 구입한 이유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배추는 대부분 배추김치(완제품)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며, 2022년 4/4분기 배추김치 완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54.3%인 반면, 직접 제조하는 비율은 31.1%로 완제품 구입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00% 국내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중국산 김치(배추)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은 23.5%이며, 반대로 현재 100% 중국산 배추 또는 김치를 사용하는 경우, 앞으로 국내산 김치(배추)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7.2%로 나타남.

배추김치 구입 유형별 비율

단위: %

직접 제조	완제품 구입
31.1	54.3

주: 배추김치 구입 유형별 비율 중 직접제조 및 완제품 외에 무응답 비율은 14.6%로 나타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3년 1/4분기 채소류 월평균 예상 구매량 중 엽근채소는 전년 동기(2022년 1/4분기) 대비 8.2%, 양념채소는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엽근채소의 1/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모든 주요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배추와 무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양념채소의 1/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건고추(-3.6%)와 양파(-2.1%)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채소류 품목별 1/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엽근채소	구분	양념채소
배추	10.3	건고추	-3.6
배추김치	7.1	고춧가루	3.1
무	11.2	마늘	4.1
당근	6.3	양파	-2.1
양배추	4.1	대파	7.0
소계	8.2	소계	0.3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4. 과채류

- 2022년 4/4분기 주요 과채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애호박, 풋고추, 오이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 3.4%,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과채류 품목별 4/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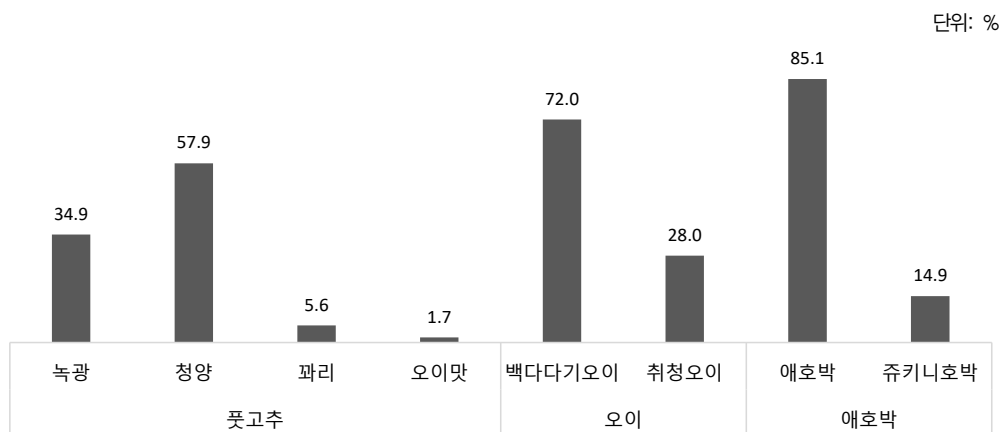
풋고추	오이	애호박	소계
3.4	2.1	5.0	3.2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음식점에서 주로 구입하는 풋고추 품종으로는 청양계풋고추가 5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녹광)풋고추(34.9%), 파리고추(5.6%), 오이맛(1.7%) 순으로 나타남.

- 오이는 취청오이(28.0%)보다는 백다다기오이(72.0%)를, 호박은 주키니(14.9%)보다는 애호박(85.1%)을 주로 구입함.

과채류 품목별 구입 품종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3년 1/4분기 주요 과채류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2년 1/4분기) 대비 1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애호박, 풋고추, 오이의 1/4분기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3%, 11.0%, 9.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과채류 품목별 1/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품목	오이	애호박	소계
11.0	9.6	11.3	10.4

주: 소계는 음식점의 품목별 구매 비중(가중치)을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5. 축산물

- 2022년 4/4분기 축산물의 월평균 구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함.
 -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4/4분기 월평균 구매량은 각 2.0%, 닭고기와 오리고기는 각 1.7% 증가함.

축산물 품목별 4/4분기 월평균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0.0	2.0	2.0	1.7	1.7	1.7

주: 소계는 각 품목별 가중치를 알 수 없어 단순평균을 낸 결과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4/4분기 축산물 주요 품목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을 조사한 결과,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 구매율이 6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쇠고기는 호주산(72.5%)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전년 동기 대비 국내산과 호주산은 각각 1.2%p, 0.6%p 감소하였으나 미국산은 1.7%p 증가함.
 - 돼지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62.8%로 전년 동기 대비 2.5%p, 미국산(12.2%), 캐나다산(5.8%)은 각 0.3%p씩 감소한 반면, 칠레산(14.4%)과 뉴질랜드산(2.6%)은 각각 3.3%p, 0.1%p 증가함.
 - 오리고기와 닭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각각 100.0%, 82.6%로 다른 축종에 비해 국내산 비중이 높게 나타남.

축산물 품목별 원산지 구입 비중

단위: %

구분	2021년 4/4분기					2022년 4/4분기				
쇠고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10.5		73.1		16.5	9.3		72.5		18.2
돼지고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국내산	미국산	캐나다산	칠레산	뉴질랜드산
	65.3	12.5	6.1	11.1	2.5	62.8	12.2	5.8	14.4	2.6
닭고기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기타	국내산		미국산	브라질산
	83.8		7.1	9.0		0.0	82.6		7.2	9.1
오리고기	국내산			프랑스산		국내산			프랑스산	
	100.0			0.0		100.0			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3년 1/4분기 주요 축산물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전년 동기(2022년 1/4분기)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4분기 축종별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오리고기가 4.3%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다음으로 돼지고기(3.1%), 닭고기(2.9%) 등의 순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축산물 품목별 1/4분기 예상 구매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소계
1.2	3.1	2.9	4.3	2.0	2.1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6. 기타

- 2022년 4/4분기 식재를 전처리된 형태로 구입하는 이유로 ‘주방 내 조리시간이 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해서’가 47.0%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19.2%)’,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14.5%)’,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전처리 식재의 구입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주방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하기 위하여	47.0
점포에서 전처리할 인력이 부족하여	19.2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	14.5
재료의 손실을 줄이고, 식재의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12.2
쓰레기 처리가 곤란하여	7.1
소계	100.0

주: 해당 조사의 대상으로 감자, 무, 배추,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2022년 4/4분기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는 ‘가격등락이 심함’이 35.5%로 가장 높았음.
 - 그 뒤로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5.2%)’,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21.5%)’,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농산물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

단위: %

항목	비중
가격등락이 심함	35.5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	25.2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가 떨어짐	21.5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	14.2
적절한 가격 정보를 얻기 곤란함	3.6
소계	10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 후식 과일의 경우, 응답 업체의 7.0%가 후식 과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공되는 후식 과일은 사과가 3.6%로 가장 높았음.
 - 후식 과일 제공 시, 수입과일을 선호하는 이유로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과일보다 낮아서’가 41.7%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산과 선호도 차이가 없어서(33.3%)’, ‘손님들이 선호해서(25.0%)’의 순서로 나타남.

후식 과일 비율

단위: %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사과	3.6	귤	0.9
오렌지	2.4	수입포도	0.3
배	1.8	바나나	0.3
파인애플	1.8	아이스홍씨	0.3
방울토마토	0.9		

주: '제공하지 않음'의 비율은 93.0%이며, 각 항목에 대한 중복응답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수입산 과일 선호 이유

단위: %

항목	비중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수입산보다 낮아서(수입산이 더 저렴함)	41.7
국내산과 선호도 차이가 없어서	33.3
손님들이 선호해서	25.0
소계	100

자료: 농업관측센터 음식점(330업체) 조사결과

2.7 요약 및 결론

- 2022년 4/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월평균 구매량은 2021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채류, 축산물은 각각 3.2%, 1.7% 증가하였고, 엽근채소와 양념채소는 각각 3.1%,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1/4분기 음식점업체의 농축산물 주요 품목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품목 대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과채류, 엽근채소, 축산물, 양념채소의 월평균 예상 구매량은 각각 10.4%, 8.2%, 2.1%, 0.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채소류의 원산지별 구입 형태를 분석한 결과, 중국산 구매율은 배추김치, 깬양파, 고춧가루, 다진마늘 순으로 높았음.
 - 수입채소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해서(75.8%)’를 가장 많이 응답함.
- 축산물의 원산지별 구입 비중은 쇠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종에서 국내산의 구입 비중이 6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국내산 구입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2~2.5%p 감소함.
- 농산물을 전처리된 식자재로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 업체의 47.0%가 ‘주방 내 조리시간이나 작업공정을 단축’이라 답했으며, 다음으로는 ‘점포 내 전처리할 인력 부족(19.2%)’, ‘식재료 구입처에서 전처리 식재를 공급해서(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식자재 구입 시 애로사항으로는 ‘농산물의 가격등락이 심한 점(35.5%)’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곤란함(25.2%)’, ‘품질의 손상이나 신선도 하락(21.5%)’, ‘규격이 균일하지 않음(14.2%)’ 등의 순서로 지적됨.
- 후식 과일을 제공한다는 음식점업체는 7.0%로 나타났으며, 후식 과일로는 사과, 오렌지, 배, 파인애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별주제

- ① 농산버섯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 ② 국내 유기축산 현황과 활성화 방안

농산버섯 소비자 구매행태 조사

양지아*, 서동주**, 이형용***

1. 버섯 생산 동향

- 버섯은 균계에 속하는 생물로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종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먹을 수 있는 버섯 또한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팽이, 송이, 표고 등 여러 종류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산 버섯은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팽이 등이며, 이 버섯들은 소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산 버섯 종류로 볼 수 있음.
 - 버섯은 크게 약용버섯과 식용버섯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식용버섯은 임산물과 농산 버섯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영지, 상황버섯 등은 약용버섯으로 분류됨. 송이와 표고버섯은 산림에서 재배되는 임산물로 분류됨.
- 버섯은 배지 제조, 살균, 발효, 접종, 배양, 생육 등의 과정을 통해 생산되며, 재배 형태에 따라 균상 재배, 병 재배, 봉지 재배 등으로 구분됨. 버섯은 버섯의 종류 및 재배 형태에 따라 재배방식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버섯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재배시설을 갖춰야 함.
- 버섯은 연중생산이 가능한 품목이며, 생산기술의 발달과 설비의 규모화 등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음. 특히 재배방식이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방식에서 기술집약적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jigeumaa@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tjsuh@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lhy2813@krei.re.kr)

- 버섯 생산량은 2013년(137,564톤)에서 2021년(133,277톤)까지 등락을 거듭하며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2.8% 증가하여 168,892톤이 생산되었으나,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7.6% 감소한 128,694톤이 생산되었음.
- 반면, 버섯 생산액은 2013년 3,643억 원에서 2021년 4,493억 원으로 최근 상승하는 추세임.

연도별 생산 현황

단위: 톤, 십억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8	2019	2020	2021
생산량	137,564	168,892	156,219	128,694	148,878	140,113	133,277
생산액	364.3	455.1	381.7	383.6	345.6	336.3	449.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특용작물생산실적), 통계청

- 4대 농산 버섯(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팽이) 생산량에서는 새송이가 3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느타리(35.3%), 팽이(20.3%) 순으로 높은 생산량 비중을 보임. 양송이 생산량은 9,258톤으로 전체 생산량 6.9%를 차지하여 4대 농산 버섯 중 생산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종류별 생산 현황(2021년)

단위: 톤, %

종류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팽이	합계
생산량	9,258	47,084	49,897	27,038	133,277
비중	6.9	35.3	37.4	20.3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특용작물생산실적), 통계청

- 버섯의 주요 수출 품목은 새송이와 팽이임. 새송이의 주요 수출국은 호주, 네덜란드, 미국이며, 팽이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호주, 베트남임.

- 새송이와 팽이의 수출량은 2015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물류비 상승 및 검역 강화 등의 이유로 2020년대에 들어 정체 또는 부진한 양상임.
 - 새송이 수출량은 2018년(7,584톤, 수출액 2,355만 달러)에 가장 많았으며, 수출액 기준으로는 2021년(2,650만 달러, 수출량 6,725톤)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
 - 팽이는 2019년에 수출량(13,142톤)과 수출액(2,272만 달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수출 현황

단위: 톤, 천 달러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새송이	수출량	3,858	4,116	4,755	5,086	5,598	6,595	7,584	7,292	6,725	5,199
	수출액	14,155	14,472	15,588	17,173	17,442	23,548	26,300	25,861	26,497	23,097
팽이	수출량	11,445	10,236	9,194	9,348	10,616	12,048	13,142	12,025	7,860	6,510
	수출액	19,480	18,131	16,417	16,525	18,763	21,489	22,719	18,527	14,395	12,611

자료: 관세청

- 최근 상승한 버섯 생산액과 달리 수출이 부진해진 상황에서 버섯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버섯 소비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다른 품목과 달리 소비에 영향을 크게 받는 버섯의 특성상 소비자들의 버섯 선호도나 소비 행태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 있음.

2. 버섯 소비 실태조사 결과

2.1. 조사 방법

- 버섯 소비 실태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바일 및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2022년 10월에 실시되었음.

주요 조사 내용

항목	내용	항목	내용
응답자 정보	- 거주 지역 - 직업 - 연령 - 소득 - 혼인여부 - 가족 구성원 - 자녀 연령 및 동거 여부	구매 행태	- 가정 내 소비/외식 비중 - 조리 방식 - 소비량 변화 - 구매횟수/물량 - 포장 형태 - 구매 경로 - 구입 시 고려사항

2.2. 응답자 특성

- 버섯 소비 실태조사 결과 총 500명의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지역별로 서울 181명, 경기·강원 136명, 충청·전라 74명, 경상·제주 10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음.
 -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50대가 약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대 이상(26%), 40대(22%)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직업은 전업주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400만~600만 원의 구간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는 기혼자(98.0%)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족 구성원은 대부분 3명 이상(79.0%)이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이(79.8%) 많은 것으로 나타났

음. 자녀는 미성년자 대비 성인의 비율이 66.2%로, 성인 자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버섯 소비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수(명)	구분		응답수(명)
		비율(%)			비율(%)
거주지역	서울	181 (36.2)	연령	30대 이하	11 (2.2)
	경기/강원	136 (27.2)		40대	108 (21.6)
	충청/전라	74 (14.8)		50대	252 (50.4)
	경상/제주	109 (21.8)		60대 이상	129 (25.8)
직업	사무직/전문직	159 (31.8)	소득	200만원 미만	24 4.8
	기술/영업직	54 (10.8)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2 (26.4)
	전업주부	272 (54.4)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99 (39.8)
	기타	15 (3.0)		800만원 이상	145 (29.0)
가족구성원	2명 이하	105 (21.0)	혼인여부	미혼	10 (2.0)
	3명 이상	395 (79.0)		기혼	490 (98.0)
자녀동거 여부	함께 거주	391 (79.8)	자녀연령	미성년자	132 (33.8)
	따로 거주	99 (20.2)		성인	259 (66.2)
전체		500 (100.0)	전체		500 (100.0)

자료: 2022년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임.

2.3. 버섯 구매 행태

- 버섯의 외식소비 비중은 팽이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 내 소비 비중은 양송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버섯을 전혀 소비하지 않는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 양송이(6.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팽이(3.0%)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버섯 외식/가정 내 소비 비율

구분	외식소비		가정 내 소비		전혀 소비하지 않음	
	응답 수	응답 비중(%)	응답 수	응답 비중(%)	응답 수	응답 비중(%)
양송이	366	(73.2)	102	(20.4)	32	(6.4)
느타리	415	(83.0)	66	(13.2)	19	(3.8)
새송이	415	(83.0)	66	(13.2)	19	(3.8)
팽이	439	(87.8)	46	(9.2)	15	(3.0)

자료: 2022년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임.

- 버섯 구매 횟수 및 구매 물량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버섯은 새송이로 나타남.
 - 버섯의 1개월 기준 구매 횟수를 살펴보면, 새송이가 2.7회로 가장 빈번하게 구입되는 버섯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팽이(2.3회), 느타리(2.1회), 양송이(1.6회) 순임.
 - 1개월 평균 구매 물량은 새송이(352.3g)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느타리(315.0g)가 그 뒤를 이음. 양송이(268.1g)와 팽이(267.2g)의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버섯 구매 횟수와 구매 물량

구분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팽이
1개월 평균 구매 횟수(회)	1.6	2.1	2.7	2.3
1개월 평균 구매 물량(g)	268.1	315.0	352.3	267.2

자료: 2022년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임.

- 전년 대비 버섯 소비량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변화 없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양송이와 느타리는 ‘약간 감소’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새송이와 팽이는 ‘약간 증가’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남.

전년 대비 버섯 소비량 변화

단위: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합계
양송이	응답 수	40	72	292	54	2	460
	(%)	(8.7)	(15.7)	(63.5)	(11.7)	(0.4)	100.0
느타리	응답 수	15	53	335	48	6	457
	(%)	(3.3)	(11.6)	(73.3)	(10.5)	(1.3)	(100.0)
새송이	응답 수	8	45	344	56	8	461
	(%)	(1.7)	(9.8)	(74.6)	(12.1)	(1.7)	(100.0)
팽이	응답 수	12	48	327	67	10	464
	(%)	(2.6)	(10.3)	(70.5)	(14.4)	(2.2)	(100.0)

자료: 2022년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임.

- 버섯의 요리 및 섭취 방식은 크게 볶음류, 찌개 및 전골류, 구이류, 전류, 무침류로 나타낼 수 있음. 버섯의 요리 및 섭취 방식은 대체로 볶음류, 찌개 및 전골류, 구이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전류와 무침류는 그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양송이 요리 및 섭취 방식으로 구이류(41.9%)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무침류(0.4%)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느타리 요리 및 섭취 방식으로 찌개 및 전골류(1순위 44.1%, 2순위 41.8%)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류(2.6%)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새송이는 구이류(49.6%)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고, 무침류(0.4%)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팽이 요리 및 섭취 방식으로 찌개 및 전골류(67.8%)를 선택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무침류를 선택한 응답은 없으며, 전류는 6.7%로 나타남.

버섯 소비 형태 (요리 및 섭취 방식)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 수	(%)	응답 수	(%)
양송이	볶음류	139	(30.2)	179	(39.3)
	찌개 및 전골류	123	(26.7)	180	(39.5)
	구이류	193	(41.9)	65	(14.3)
	전류	4	(0.9)	27	(5.9)
	무침류	2	(0.4)	5	(1.1)
느타리	볶음류	203	(44.1)	182	(39.8)
	찌개 및 전골류	203	(44.1)	191	(41.8)
	구이류	25	(5.4)	27	(5.9)
	전류	12	(2.6)	35	(7.7)
	무침류	17	(3.7)	22	(4.8)
새송이	볶음류	122	(26.4)	147	(32.5)
	찌개 및 전골류	82	(17.7)	143	(31.6)
	구이류	229	(49.6)	83	(18.4)
	전류	27	(5.8)	71	(15.7)
	무침류	2	(0.4)	8	(1.8)
팽이	볶음류	66	(14.3)	148	(32.6)
	찌개 및 전골류	314	(67.8)	107	(23.6)
	구이류	52	(11.2)	79	(17.4)
	전류	31	(6.7)	106	(23.3)
	무침류	0	(0.0)	14	(3.1)

자료: 2022년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임.

- 버섯의 포장은 낱개 포장, 100g~1kg 포장 등으로 다양한 단위를 보임. 응답자가 소비하는 버섯의 포장 방식은 크게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는 형태, 모듬 형태, 소포장 형태, 박스 형태로 나눌 수 있음.
- 버섯의 포장 방식은 대체로 소포장 형태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박스 형태는 그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양송이 포장 방식은 소포장 형태(71.7%)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는 형태(1순위 19.5%, 2순위 47.9%)가 그 뒤를 이었으며, 박스 형태(3.6%)는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음.
 - 느타리는 소포장 형태(74.9%)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는 형태(1순위 16.7%, 2순위 41.8%)가 그 뒤를 이었으며, 모듬 형태(2.3%)와 박스 형태(6.2%)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음.
 - 새송이의 포장 방식 또한, 소포장 형태(83.9%),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는 형태(1순위 8.7%, 2순위 42.1%)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모듬 형태(4.3%)와 박스 형태(3.1%)는 낮은 비중을 보였음.
 - 팽이의 포장 방식은 소포장 형태(88.3%)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하는 형태(5.5%), 모듬 형태(5.1%), 박스 형태(1.1%)는 낮은 비중을 보였음.

버섯 소비 형태 (포장)

구분		1순위		2순위	
		응답 수	(%)	응답 수	(%)
양송이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	76	(19.5)	181	(47.9)
	모듬형태	20	(5.1)	110	(29.1)
	소포장 형태	279	(71.7)	75	(19.8)
	박스형태	14	(3.6)	12	(3.2)
느타리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	73	(16.7)	175	(41.8)
	모듬형태	10	(2.3)	133	(31.7)
	소포장 형태	328	(74.9)	79	(18.9)
	박스형태	27	(6.2)	32	(7.6)
새송이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	39	(8.7)	174	(42.1)
	모듬형태	19	(4.3)	165	(40.0)
	소포장 형태	375	(83.9)	48	(11.6)
	박스형태	14	(3.1)	26	(6.3)
팽이	원하는 양만큼 저울에 달아서 구입	25	(5.5)	136	(33.8)
	모듬형태	23	(5.1)	208	(51.7)
	소포장 형태	399	(88.3)	39	(9.7)
	박스형태	5	(1.1)	19	(4.7)

자료: 2022년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임.

- 버섯의 주요 구매 경로는 크게 동네 슈퍼마켓(대기업 운영 제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등), 전통시장, 백화점, 친환경식품 전문점(생협, 한살림, 초록마을 등), 온라인 쇼핑몰(쿠팡,마켓컬리 등),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눌 수 있음.
 - 주요 구매 경로의 비중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대형마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네 슈퍼마켓, 중소형 슈퍼마켓, 전통시장이 그 뒤를 이음. 백화점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버섯 주요 구매 경로

단위 : 명

구분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팽이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응답 수	비중(%)
동네 슈퍼마켓	91	(23.6)	129	(29.5)	133	(29.7)	153	(33.8)
중소형 슈퍼마켓	57	(14.9)	58	(13.3)	55	(12.3)	53	(11.7)
오프라인 대형마트	142	(37.0)	156	(35.7)	164	(36.6)	153	(33.8)
전통시장	47	(12.3)	45	(10.3)	49	(10.9)	46	(10.2)
백화점	2	(0.4)	1	(0.2)	0	(0.0)	0	(0.0)
친환경식품 전문점	17	(4.4)	22	(5.0)	20	(4.5)	21	(4.6)
온라인 쇼핑몰	19	(5.0)	15	(3.4)	15	(3.3)	15	(3.3)
로컬푸드 매장	9	(2.4)	11	(2.5)	12	(2.7)	11	(2.4)
전체	384	(100.0)	437	(100.0)	448	(100.0)	452	(100.0)

자료: 2022년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패널 조사 결과임.

2.4. 버섯 구입 시 고려사항

- 버섯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 영양가, 특유의 맛, 특유의 식감, 신선도, 색깔/모양, 위생 및 안전성, 가격, 원산지, 친환경인증, 기타인증, 요리의 편리성, 요리 종류의 다양성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응답자의 척도(5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버섯 소비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버섯을 구입할 때 신선도, 원산지, 위생 및 안전성 등 식품 안전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신선도는 양송이(4.5), 느타리(4.5), 새송이(4.4), 팽이(4.4) 모두 버섯 구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음.
 - 원산지는 양송이(4.4), 느타리(4.4), 새송이(4.3), 팽이(4.3)의 모든 경우에서 버섯 구입 시 중요하게 생각되는 항목으로 나타났음.
 - 위생 및 안전성은 양송이(4.2), 느타리(4.2), 새송이(4.2), 팽이(4.2) 모두 높은 고려사항으로 나타났음.
- 버섯 가격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종류별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팽이는 다른 종류에 비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버섯 구입 시, 요리의 편리성, 요리 종류의 다양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요리의 편리성의 경우, 양송이와 느타리의 척도는 3.6, 새송이와 팽이는 3.7로 나타났으며, 요리 종류의 다양성의 경우, 양송이의 척도는 3.5, 느타리, 새송이, 팽이는 3.6으로 나타남.
- 소비자가 버섯을 구입할 때, 버섯 브랜드에 대한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품목에서 가장 낮게 응답됨.

버섯 구입 시 고려사항(5점 척도)

구분	양송이	느타리	새송이	팽이
영양(건강)	3.8 (0.79)	3.9 (0.75)	3.9 (0.74)	3.9 (0.77)
특유의 맛	3.8 (0.73)	3.8 (0.73)	3.8 (0.76)	3.8 (0.75)
특유의 식감	3.8 (0.77)	3.8 (0.74)	3.9 (0.75)	3.9 (0.76)
신선도	4.5 (0.76)	4.5 (0.66)	4.4 (0.68)	4.4 (0.73)
색깔/모양	4.1 (0.78)	4.1 (0.73)	4.2 (0.81)	4.2 (0.75)
위생 및 안전성	4.2 (0.75)	4.2 (0.71)	4.2 (0.70)	4.2 (0.73)
가격	4.0 (0.76)	4.0 (0.74)	4.0 (0.77)	3.9 (0.81)
원산지	4.4 (0.78)	4.4 (0.81)	4.3 (0.82)	4.3 (0.81)
친환경인증	3.7 (0.86)	3.7 (0.85)	3.8 (0.87)	3.8 (0.87)
기타인증	3.6 (0.82)	3.6 (0.86)	3.7 (0.84)	3.7 (0.86)
요리의 편리성	3.6 (0.82)	3.6 (0.82)	3.7 (0.83)	3.7 (0.85)
요리 종류의 다양성	3.5 (0.96)	3.6 (0.95)	3.6 (0.91)	3.6 (0.94)
브랜드	3.0 (0.80)	3.1 (0.78)	3.2 (0.78)	3.2 (0.77)

3. 요약 및 시사점

- 버섯 구매 행태 조사 결과, 버섯 소비는 가정 내 소비보다 외식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의 버섯 소비가 주로 외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버섯의 섭취가 식당 요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큼.
 - 가정 내 소비를 중심으로 버섯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버섯의 고유 가치(균형적인 영양, 항암/면역 기능, 낮은 칼로리, 특유의 식감으로 고기 대용으로 소비될 수 있음 등)와 다양하고 편리한 요리법 등에 대한 홍보가 확대될 필요 있음.
- 버섯 구입 시, 요리의 편리성, 요리 종류의 다양성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요리의 편리성) 버섯의 요리 및 섭취 방식이 볶음류, 찌개 및 전골류, 구이류에 집중되고 버섯이 육류 요리를 보완하는 부재료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버섯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요리의 주재료 판매와 연계를 강화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함.
 - (요리의 다양성) 버섯의 종류가 많고, 버섯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향과 맛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호에 따른 다양한 요리 레시피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버섯 소비에 대한 접근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많은 소비자는 버섯을 구입할 때 신선도, 모양, 색깔, 안전성 등 버섯의 품질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버섯의 소비 용도별로 다양한 전처리 방식이 개발·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안전성을 강조할 수 있는 포장 및 홍보가 요구됨.
 - 브랜드에 대한 낮은 중요도는 생산자의 새로운 판로 확대에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생산자 중심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내 유기축산 현황과 활성화 방안¹⁾

이용건*

1. 유기축산물 인증기준과 농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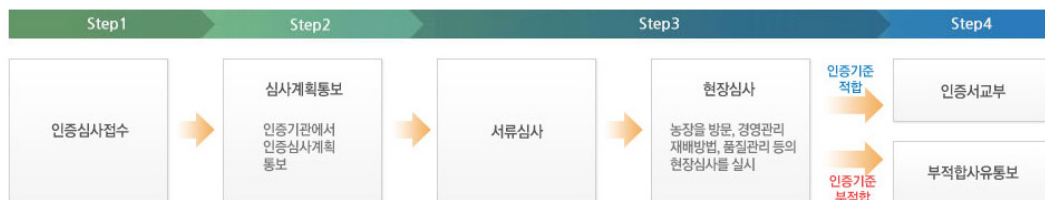
- 우리나라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규모화를 중심으로 발전하며 지속 성장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규모화 이면에는 밀식 사육 등으로 가축전염병, 분뇨, 악취, 항생제 남용 등 부정적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들의 지속과 소비자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부터 유기축산물 인증을 국내에 도입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HACCP 농장인증 받은 농가 중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 이처럼 축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기축산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유기축산물은 인공합성물이나 인위적인 변형산물을 가하지 않고, 품종 선발에서 도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생산된 가장 상위의 친환경축산물임. 2001년에 도입된 유기축산물 인증은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일정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yglee@krei.re.kr)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기축산의 가치평가 및 인증 활성화 방안”(2022. 11.)을 기반으로 작성됨.

-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경영관련 자료와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 및 필요한 관련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 시 제공해야 함.
 - 인증품 생산계획서에는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 기반,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전환 기간, 사료(먹이) 및 영양 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운송·도축·가공 과정의 품질관리, 가축분뇨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유기축산물 인증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같으며, 유기축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 후 1년임.

유기축산물 인증 과정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https://www.enviagro.go.kr/portal>, 검색일: 2022.6.21.).

- 유기축산물 인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4호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으로 초식가축(반추가축)의 경우 가축 1마리당 자급사료 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축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육밀도를 유지해야 함.
 -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 유기사료를 급여해야 하며, 일반 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는 등에는 가축의 종류별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해야 함.
 - 유기축산물 인증을 위해 자급사료 재배포장도 전환기간이 필요하며, 유기 자급사료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함.

주요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구분	주요 기준	
사료 급여	- 유기사료 급여: 100% 유기사료 급여 - 초식가축: 담근먹이(사일리지) 이외에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 급여	
자급사료 기반	- 한·육우: 목초지 2,475㎡/마리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825㎡/마리 - 젖소: 목초지 3,960㎡/마리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 1,320㎡/마리 - 유기 자급사료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을 준수하여 생산	
축사면적 기준	- 한·육우 번식우(방사식): 10㎡/마리 - 한·육우 비육우(방사식): 7.1㎡/마리 - 젖소 경산우(갈집): 17.3㎡/마리	- 돼지(비육돈): 1.5㎡/마리 - 산란계(성계): 0.22㎡/마리 - 육계: 0.1㎡/마리
방목 조건	- 초식가축은 축사면적 기준의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 확보	
전환 기간	- 한·육우: 입식 후 12개월 - 젖소(착유우): 입식 후 3개월 - 돼지: 입식 후 5개월	- 육계: 입식 후 3주 - 산란계: 입식 후 3개월 - 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 3년 이상
휴약기간	-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점부터 전환 기간이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출하 가능 (약품의 휴약기간 2배가 전환 기간보다 긴 경우 휴약기간의 2배 기간 적용)	
기타 사항	- 유기축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 후 1년 -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동물약품 사용 제한 등	

자료: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1-4호)」 [별표 1]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을 요약해 작성함.

-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수는 2021년 133호로 2015년 108호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축산농가 수를 고려하면 인증 농가 비율은 낮은 수준임.
 - 2021년 기준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비중은 축종별로 젖소가 45.9%로 가장 높으며, 한·육우 30.1%, 산란계 12.0%, 육계 3.8%, 돼지 1.5% 등의 순임.
 - 2015년 이후 한·육우와 젖소 농가의 인증은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산란계, 양돈, 육계 농가의 인증은 정체하고 있음.
- 한편 2021년 전체 축산농가 수 대비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수 비율은 산란계가 1.69%, 낙농 1.00%, 육계 0.32%, 한·육우 0.04%, 양돈 0.03% 순으로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비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위하여 유기사료 100% 급여, 자급사료 기반, 방목장 및 사육시설 기준, 전환기간 준수 등으로 생산비는 증가하나, 생산성이

낮으며 유기축산물 인증을 위한 기준 준수, 국내 사육 여건(토지 기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축종별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현황

단위: 호

연도		한육우	젖소	산란계	양돈	육계	기타	합계
2015년		35	47	15	5	2	4	108
2016년		29	49	17	4	5	4	108
2017년		32	53	15	4	4	3	111
2018년		27	56	13	3	3	4	106
2019년		34	54	15	2	3	5	113
2020년		36	54	14	2	3	3	112
2021년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A)	40	61	16	2	5	9	133
	축종별 비중(%)	(30.1)	(45.9)	(12.0)	(1.5)	(3.8)	(6.8)	(100.0)
	전체 축산농장 수(B)	93,845	6,105	946	5,942	1,584	-	-
	인증 비율(A/B)(%)	(0.04)	(1.00)	(1.69)	(0.03)	(0.32)	-	-

주 1) 기타 축종은 사슴(늑용, 식육), 산양유, 염소, 오리 등임.

2) 한육우는 한우와 육우농가 합계이며, 축종을 중복하여 사육하는 농가를 포함함(농가 중복).

- 한편,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는 HACCP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의 지급 기간은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이며, 축산농가당 지급한도액은 연간 3천만 원임.
 - 지급단가는 2023년 개정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축종별로 한우 30만원/마리, 젖소(우유) 100원/ℓ, 계란 13원/개, 육계 440원/마리, 돼지 25,000원/마리 등임.

-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중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수령한 농가 수는 2021년 29호이며,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수의 21.8% 수준임. 유기축산물 인증농가 중에서 친환경축산직불금 수령 농가 비중은 2017년 29.7%, 2018년 32.1%, 2019년 31.0%, 2020년 28.6%, 2021년 21.8%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수는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으나, 친환경축산직불금 수령 농가 수가 감소 또는 정체하는 이유는 친환경축산직불금의 지급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와 친환경축산직불금 수령 현황

단위: 호(%)

연도	축종	한육우	젖소	산란계	육계	양돈	기타	합계
'17년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수	32	53	15	4	4	3	111
	친환경축산직불금 수령 농가 수	6	25	1	1	0	0	33
'20년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수	36	54	14	3	2	3	112
	친환경축산직불금 수령 농가 수	5	23	4	0	0	0	32
'21년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수(A)	40	61	16	5	2	9	133
	친환경축산직불금 수령 농가 수(B)	4	21	4	0	0	0	29
	B/A(%)	(10.0)	(34.4)	(25.0)	0.0	0.0	0.0	(21.8)
지급 단가	2022년까지	17만원/마리 (육우는 50%)	50원/ℓ	10원/개	200원 /마리	16,000원 /마리	-	-
	2023년부터	30만원/마리 (육우는 50%)	100원/ℓ	13원/개	440원 /마리	25,000원 /마리	-	-

주 1) 기타 축종은사슴(녹용, 식육), 산양우, 염소, 오리 등임.
 2) 통계 집계 시기에 따라 인증 농가 수의 차이가 발생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사)친환경축산협회 내부자료.

2. 유기축산의 가치 및 기능

- 유기축산의 기능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유기농업 관련 지침 및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 정의하는 유기농업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유기축산의 가치와 관련된 기능을 정립함.

유기축산의 가치 목록



자료: 연구진 작성.

- 유기축산의 가치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²⁾의 유기농업의 원칙에 기반하여 분류했으며, 일반축산과 유기축산의 차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국내 축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기축산의 기능을 정의함.
 - 생태(Ecology)는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가 지속되고, 최근들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문제가 새롭게 대두함에 따라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기여(환경부담 완화)와 자연 및 농업 생태계 보전으로 정의함.

2)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은 1972년에 설립되었으며 유기농업의 원칙에 따라 전 세계 농업에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서는 '생태(Ecology)', '공정(fairness)', '건강(Health)', '배려(Care)'라는 유기농업의 4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건강(Health)은 인간의 건강과 동물의 건강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인간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잔류 농약 및 항생제 등이 없는 식품 공급과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식품 안전성 제고로 정의함. 동물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쾌적한 사육환경을 통한 동물 후생 증진과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등을 통한 동물복지 증진으로 정의함.
- 공정(Fairness)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자원 순환 등 지역사회 유지(지역경제)와 규모 확대에 제약이 있는 중소규모 유기 축산농가의 소득 확보 등 공정한 소득분배(공정한 사회)로 정의함.
- 배려(Care)는 유기축산과 유기농업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실현, 토양의 비옥도 유지 등을 통해 농업 및 생태자원의 보전 등으로 미래 세대 배려(지속가능성)로 정의함.

유기축산의 가치와 기능의 개념적 정의

가치	유기축산 기능	세부 내용
생태 (Ecology)	환경보전 및 탄소중립 기여 (환경부담 완화)	-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국가 탄소중립 기여 - 축산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 - 축산업에 의한 수질·토양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 억제 - 가축분뇨, 부산물 등 폐기물 감소
	생태계 보전 (자연, 농업)	- 유기퇴비 공급 등 유기농업 지원(경축순환)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제한(유기사료 재배 등) - 생태기능 강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유지 - 천연자원 보존 및 토양생물 활동 촉진 - 자연생태계 및 농업생태계 보전
건강 (Health)	식품 안전성 제고 (인간 건강)	- 잔류 농약 및 항생제 등이 없는 안전한 축산식품 제공 -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 - 안전·웰빙 식품공급으로 소비자 건강증진 - 식품 안전사고 예방
	동물복지 증진 (동물 건강)	- 충분한 사육 공간 확보, 동물 학대 금지 등 동물복지 증진 - 쾌적한 사육 여건을 통해 동물 후생에 기여 - 동물의 습성 배려 및 자연에 가까운 사육환경 조성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공정 (Fairness)	지역사회 유지 (지역경제)	- 농가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촌지역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사회 유지(농촌소멸 대응) -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및 지역 내 자원 순환 - 유기 농업부산물 활용 등 지역 자원의 효율적 이용 - 지역 농업지역 삶의 질 향상
	공정한 소득분배 (공정한 사회)	- 중소규모 가족농 소득 확보(중소 가족농 유지) - '소비자 - 축산농가'의 신뢰 향상 - 유기축산물의 적절한 가격 평가 - 유기축산 실천 농가에 대한 소득 향상
배려 (Care)	미래 세대 배려 (지속가능성)	- 유기농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실현 - 농업 및 생태자원의 보존(토양의 비옥도 유지 등) - 농업기반 유지 및 전통 농축산업 계승

자료: 연구진 작성.

3.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3.1. 소비자조사 개요

-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유기축산의 가치평가 등을 위해 소비자조사를 시행하였음. 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추진하였음. 소비자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조사로 추진했으며,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표본으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기반해 비례 할당하였음.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개요

구분	소비자 조사
조사 기간	2022년 10월 24일 ~ 11월 11일
조사 대상	최근 1년간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등)을 구입한 가정
조사 지역	전국(서울, 경기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으로 7개 권역 구분)
표본 크기	1,000명
표본추출 방법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비례 할당

자료: 연구진 작성.

- 주요 조사 문항은 축산물 구매 형태, 유기 인증 축산물 구매 경험 및 의향, 유기 인증 축산물 구매 관련 선택실험 문항, 유기 인증 축산물 만족도 및 이미지 등으로 구성하였음.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와 친환경축산직불금 수령 현황

구분	조사 내용	
축산물 구매 관련 문항	· 축산물 구매 시 고려사항 · 축산물 주요 구매 장소 및 이유	· 유기축산물 인증제도 인지 여부
유기축산물 구매 및 가치 관련 문항	·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및 종류 · 유기축산물 구매/비구매 이유 · 향후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	· 국내 유기축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 · 유기축산이 지니는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
유기축산 관련 선택실험 문항	· 한우 구이용(안심 100g) · 한우 국거리(양지 100g)	· 계란(특란 및 대란 10개) · 우유(흰우유 1ℓ)
유기축산의 이미지 적합도	· 유기축산물이 일반(관행) 축산물과 비교되는 이미지 적합도 ·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가 일반(관행) 축산 농가와 비교되는 이미지 적합도	
응답자 특성 문항	· 성별, 연령 및 결혼 여부 · 가족 구성원(자녀, 임신부 유무 등)	· 소득 및 교육 수준 · 기타 응답자 선정 문항 등

자료: 연구진 작성.

3.2. 유기축산물 구매현황 및 구매 의향

- 소비자들이 축산물 구매 시 주요 고려 요소(1순위 기준)는 ‘신선도(31.7%)’와 가격(21.4%) 등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려 요소로 ‘정부 인증마크(6.2%)’나 ‘안전성(5.6%)’은 낮게 나타남.
- 이는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며, 유기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의 차이를 인지하는 소비자(‘그렇다’ 및 ‘매우 그렇다’에 응답)는 15.6%, 유기축산물과 동물복지축산물 인증의 차이를 인지하는 소비자도 15.3%로 낮기 때문으로 평가됨.

유기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단위: %

구분	(응답 수)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평균
나는 '유기축산물'과 관행의 '일반축산물'의 차이를 알고 있음.	(1,000)	20.4	36.4	27.6	14.1	1.5	2.40
나는 '유기축산물 인증'과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의 차이를 알고 있음.	(1,000)	19.1	39.0	26.6	13.6	1.7	2.40
나는 '유기축산물 인증'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의 차이를 알고 있음.	(1,000)	17.8	35.3	29.0	16.2	1.7	2.49
나는 '유기축산물 인증 농장'과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차이를 알고 있음.	(1,000)	20.5	41.7	25.5	10.7	1.6	2.31

자료: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

- 응답한 소비자들의 축산물 주요 구매장소(1순위 기준)로는 '대형마트'가 44.7%로 가장 많았으며, '로컬매장' 16.7%, '슈퍼마켓'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기 농축산물 전문판매점'은 3.8%로 낮았음. 주요 구매처에서 구매하는 이유로는 '거리상 가까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8.2%로 가장 많았으며, '제품을 신뢰할 수 있어서' 15.7%, '가격이 저렴해서' 12.4%, '위생적이고 안전해서' 9.4% 등의 순이었음.
- 유기축산물 인증 축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1.8%로 나타났으며,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38.2%로 나타남. 구매한 유기축산물의 종류로는 브랜드화 등으로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기 우유'와 최근 들어 온라인 및 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유기 계란'이 많았음.
- 응답자 특성별로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 소비자가 68.6%로 남성 55.3%보다 높았으며, 서울지역 거주자의 구매 경험 비율이 68.3%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음. 가구 구성원 수가 4명인 경우 구매 경험 비율이 70.9%로 높았으며,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구매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임신 계획이 있거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아질수록 구매 경험 비율이 증가하며, 임신 계획이 있거나 기혼(주말부부)의 구매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응답자 특성별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여부

구분		응답 수	있음 (%)	없음 (%)	구분		응답 수	있음 (%)	없음 (%)
전체		1,000	61.8	38.2	가구 구성원 수	1명	164	54.3	45.7
성별	남성	510	55.3	44.7		2명	241	60.2	39.8
	여성	490	68.6	31.4		3명	288	62.2	37.8
지역	서울권	189	68.3	31.7		4명	247	70.9	29.1
	200만원 미만	92	40.2	59.8		5명 이상	60	50.0	50.0
가구 월평균 소득	200~299만원	162	52.5	47.5	자녀 타지 생활 여부	함께 동거	347	67.4	32.6
	300~399만원	140	61.4	38.6		모두 타지 생활	15	40.0	60.0
	400~499만원	138	62.3	37.7		일부 타지 생활	76	65.8	34.2
	500~599만원	128	65.6	34.4		자녀 없음	562	58.4	41.6
	600~799만원	165	70.3	29.7	기타	임신 계획 있음	49	75.5	24.5
	800만원 이상	175	70.9	29.1		기혼(주말부부)	36	66.7	33.3

자료: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

-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식품 안전성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5.2%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 상태가 좋고, 신선도가 높아서’ 20.2%, ‘자연 친화적인 사육 방식으로 생산되어서’ 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구매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반축산물에 비해 비싸서’가 47.6%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구매처에 유기축산 인증제품이 없어서’ 19.1%, ‘일반축산물과 차별성이 없음’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유기축산물 구매 및 비구매 이유(1순위 기준)

유기축산물 구매 이유 (구매 경험 있는 응답자 대상)	응답 수	비중 (%)	유기축산물 비구매 이유 (구매 경험 없는 응답자 대상)	응답 수	비중 (%)
유기축산물은 잔류 농약 및 항생제 등 식품 안전성이 높아서	156	(25.2)	유기축산물 가격이 일반축산물에 비해 비싸서	182	(47.6)
유기축산물은 위생 상태가 좋고, 신선도가 높아서	125	(20.2)	주로 축산물을 구매하는 매장에 유기축산물 인증제품이 없어서	73	(19.1)
유기축산물은 자연 친화적인 사육 방식으로 생산되어서	94	(15.2)	유기축산물이 일반축산물과 차별성이 없음	46	(12.0)
무항생제, 동물복지 축산 등 다른 인증을 함께 받고 있어서	58	(9.4)	유기축산물 인증에 관심이 없어서	28	(7.3)
유기축산물은 영양이 풍부해서	50	(8.1)	유기축산물 인증을 신뢰할 수 없음	24	(6.3)
유기축산물은 축산물 중에서 가장 고품질 축산물이기 때문에	40	(6.5)	동물복지, 무항생제 등 다른 인증 축산물을 선호해서	12	(3.1)
유기축산물은 사육과정에서 동물복지 수준이 높아서	39	(6.3)	특정 브랜드 축산물을 선호해서	10	(2.6)
선호하는 브랜드의 유기축산물 인증 상품이 있어서	39	(6.3)	축산물의 유기 인증이 필요 없고 환경에 도움 되지 않아서	3	(0.8)
기타	17	(2.8)	기타	4	(1.0)
합계(총 응답 수)	618	(100)	합계(총 응답 수)	382	(100)

자료: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

- 소비자에게 향후 유기축산물 인증 축산물에 대한 구매 의향을 조사한 결과 구매 의향이 있는 소비자(‘매우 높다’ 및 ‘있다’에 응답한 소비자)는 65.8%로 비교적 많았으며, 구매 의향이 없는 소비자(‘없다’ 및 ‘전혀 없다’에 응답한 소비자)는 6.3%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이러한 유기축산물에 대한 구매 의향은 과거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80.6%로 매우 높았으나, 지금까지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는 41.8%로 구매 의향이 낮으며, ‘보통’에 응답한 비율이 45.0%로 높게 나타남.

- 축종별로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은 ‘유기 계란’이 70.5%로 가장 높으며, ‘유기 우유’ 70.0%, ‘유기 돼지고기’ 64.2%, ‘유기 닭고기’ 63.9%, ‘유기 한우고기’ 56.9%로 나타남. 한편, ‘수입 유기축산물’에 대한 구매 의향은 46.2%로, 국내 유기축산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향후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

단위: %

구분	(응답 수)	구매 의향 비중(%)					5점 평균 (점)
		전혀 없다 (1점)	없다 (2점)	보통 (3점)	있다 (4점)	매우 높다 (5점)	
전체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	(1,000)	1.7	4.6	27.9	54.3	11.5	3.69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있음	(618)	1.0	1.1	17.3	63.9	16.7	3.94
유기축산물 구매 경험 없음	(382)	2.9	10.2	45.0	38.7	3.1	3.29
유기 한우고기 구매 의향	(1,000)	2.3	8.5	32.3	46.8	10.1	3.54
유기 우유·유제품 구매 의향	(1,000)	1.7	6.0	22.3	52.3	17.7	3.78
유기 계란 구매 의향	(1,000)	1.8	4.8	22.9	50.4	20.1	3.82
유기 닭고기 구매 의향	(1,000)	2.2	5.2	28.7	50.3	13.6	3.68
유기 돼지고기 구매 의향	(1,000)	2.0	5.1	28.7	51.8	12.4	3.68
수입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	(1,000)	2.9	12.6	38.3	37.4	8.8	3.37

자료: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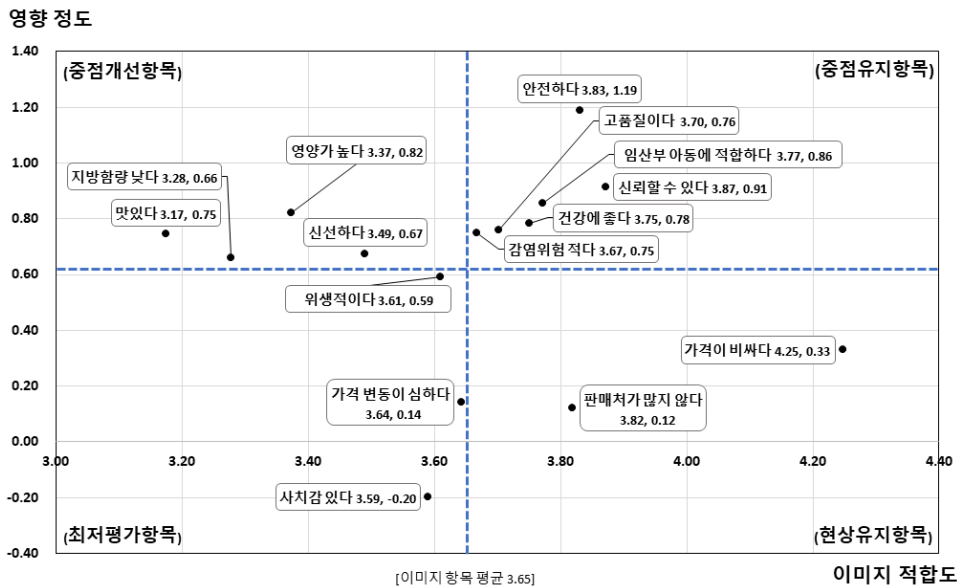
-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축산물’과 ‘유기축산 농가’의 이미지를 분석함. 해당 이미지는 일반축산과 비교되는 유기축산물 및 유기축산 농가의 이미지이며, 분석을 위해 유기축산의 이미지 점수와 유기축산물 구매 영향력 점수를 산출함.
 - 유기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점수(X축)는 특정 이미지 A에 대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한 가중평균값이며, 유기축산물 구매 영향력 점수(Y축)³⁾는 특정 이미지 A에 대하여 구매 의향이 있는 응답자와 구매 의향이 없는 응답자의 이미지

3) 구매 영향력 점수 산출식: 유기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A에 대하여(유기축산물 구매 의향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대상자의 이미지 A에 대한 평균 점수) - (유기축산물 구매의향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에 응답한 대상자의 이미지 A에 대한 평균 점수)

점수 차이임.

- 먼저 일반축산물과 비교되는 유기축산물에 대한 이미지로 ‘중점유지항목(Ⅰ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은 ‘안전하다’, ‘신뢰할 수 있다’, ‘임산부나 아동에 적합하다’, ‘건강에 좋다’, ‘고품질이다’등이며, 이러한 항목들은 유기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적합도가 높으며,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임. 따라서 유기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이미지로 해석됨.
- 한편 ‘중점개선허목(Ⅱ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인 ‘신선하다’, ‘영양가가 높다’, ‘맛있다’ 등은 구매 영향력은 높으나, 이미지 적합도는 낮은 항목으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유기축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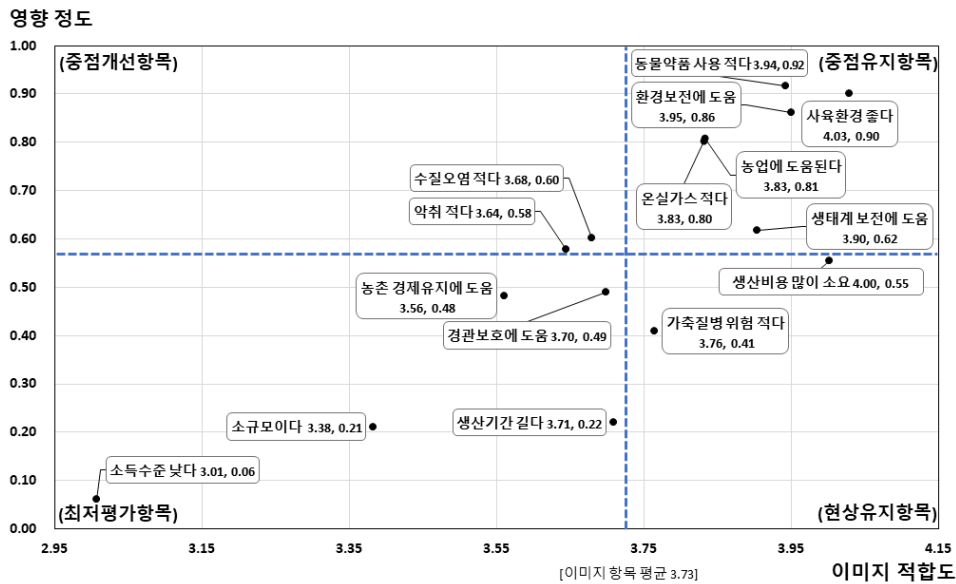
향후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



자료: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를 이용해 작성함.

- 일반축산 농가와 비교되는 유기축산 농가의 이미지로 ‘중점유지항목(Ⅰ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은 ‘사육환경이 좋다(동물복지 증진)’, ‘동물약품 사용량이 적다’, ‘환경보전에 도움이 된다’,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 ‘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된다’ 등임. 이러한 항목들은 유기축산 농가에 대한 이미지 적합도가 높으며,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임. 따라서 유기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하는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중점개선험목(Ⅱ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은 ‘생산과정에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이 적다’, ‘생산과정에서 약취가 적다’이며, 이러한 항목에 대한 유기축산 농가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유기축산물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향후 유기축산물 구매 의향



자료: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를 이용해 작성함.

3.3. 유기축산의 가치 및 기능 평가

- 유기축산의 가치 및 기능에 대한 중요도 평가하였음. 제시된 유기축산의 가치는 ‘생태(Ecology)’, ‘건강(Health)’, ‘공정(Fairness)’, ‘배려(Care)’ 4가지이며, 유기축산의 기능으로는 7가지 기능을 제시하였음.
 - 각각의 유기축산의 기능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의 5개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음.⁴⁾
- 유기축산의 세부적인 가치평가 순위는 ‘식품 안전성 제고(인간 건강)’가 4.2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미래 세대 배려(지속가능성)’이 4.12, ‘생태계보전(자연, 농업)’ 4.1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공정한 소득 분배(공정한 사회)’는 3.81점으로 유기축산의 가치 중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유기축산의 세부 가치평가 및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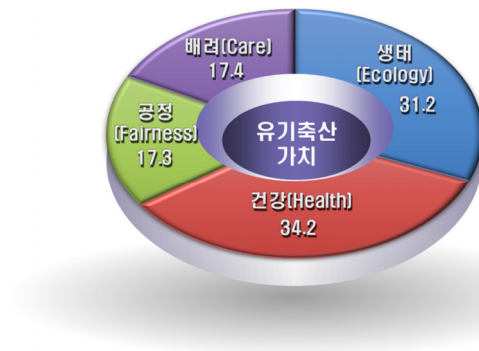
구분		가치평가 응답 비중(%)					5점 평균 (점)	세부 기능 순위
		중요 하지 않다	←	보통	→	중요 하다		
가치	세부 기능	(1점)	(2점)	(3점)	(4점)	(5점)		
생태 (Ecology)	환경보전·탄소중립 기여(환경부담 완화)	0.4	2.0	18.8	57.7	21.1	3.97	5
	생태계 보전(자연, 농업)	0.1	1.6	13.5	57.8	27.0	4.10	3
건강 (Health)	식품 안전성 제고(인간 건강)	0.0	1.1	13.1	49.6	36.2	4.21	1
	동물복지 증진(동물 건강)	0.5	1.4	17.0	53.6	27.5	4.06	4
공정 (Fairness)	지역사회 유지(지역경제)	0.5	2.2	25.2	54.4	17.7	3.87	6
	공정한 소득 분배(공정한 사회)	0.4	3.6	27.3	52.1	16.6	3.81	7
배려 (Care)	미래 세대 배려(지속가능성)	0.2	1.3	16.3	50.4	31.8	4.12	2

주: 항목별 응답자 수는 1,000명임.
자료: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

4) 정확한 조사를 위해 유기축산 가치 목록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시한 후 설문에 응답함.

- 다음은 유기축산이 지니는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생태(Ecology)’, ‘건강(Health)’, ‘공정(Fairness)’, ‘배려(Care)’ 4가지 가치에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으며 각 항목의 합계가 100점이 되도록 조사하였음.
- 집계 결과, ‘건강(Health)’ 가치에 대한 평균 점수가 3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태(Ecology)’ 31.2점, ‘배려(Care)’ 17.4점, ‘공정(Fairness)’ 17.3점으로 조사되어 ‘건강(Health)’과 ‘생태(Ecology)’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가 높이 평가되었음.

유기축산이 지니는 가치의 상대적 중요도



자료: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조사 결과.

4. 시사점

- 유기축산은 잔류 농약 및 항생제가 없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환경보전, 생태계 복원, 동물복지 실현, 지역 내 순환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환경·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 유기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구매 경험 및 구매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축산이 지니는 가치와 기능, 그리고 환경·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내 유기축산물 인증 확대 및 지속을 위한 정책지원의 당위성은 확보됨. 따라서 축산농가의 유기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제」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가 인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기축산물 인증에 대해서도 유기지속직불금 도입이 필요함.⁵⁾
- 유기축산물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체계 강화가 필요함. 소비자 인식 수준이 낮은 유기축산물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유기축산물 인증에 대해 활발한 홍보 및 정보전달이 필요함. 그리고 유기축산물에 대한 높은 소비자 구매 의향이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주로 축산물을 주로 구매하는 대형마트, 로컬매장 등에서 판매처 확대가 필요함. 이와 더불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이 유기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높은 가격수준을 낮추는 노력도 필요함.
- 유기축산물 소비 확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유기축산물 학교급식 등 대량 수요처 확보 노력이 필요함.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유기축산물을 공급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식생활을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의 유기축산물 인증 참여 확대 및 유기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해 유기축산이 지니는 가치 및 기능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5) 현재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 인증'에만 지급하고 있음.